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도시 근교 산지 이용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활동 양상 고찰 연구

- 관악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Interaction Activity through the Use of Mountain Near Urban Area

– Focused on Gwanak Mountain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신 혜 수

도시 근교 산지 이용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활동 양상 고찰 연구

- 관악산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신 혜 수

신혜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도시 근교 산지 이용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활동 양상 고찰 연구

- 관악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신 혜 수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위 원 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_____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위 원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국 문 초 록

최근 들어 등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뿐만 아니라 자연풍경감상, 숲속 문화 체험, 둘레길 걷기, 산림욕 등 다양한 활동이 산에서 이루어지면서 산림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2030세대의 산행이 증가하고 있고, 산스타그램도 유행화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동적 휴식, 신체적, 정신적, 사회교류적 휴식을 산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사람은 연인, 가족, 친구 그리고 동호회 등과 같은 다양한 관계와 함께 등산하며 휴식과 친목 활동을 목적으로 산을 방문한다. 또한, 등산을 하면서 대화하고, 사진 찍는 것과 같은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행한 관계로부터 교류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행태를 파악하고, 동행 관계에 따라 교류 활동과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1인, 2인, 3-5인 인 소규모 그룹, 그리고 6인 이상인 대규모 그룹으로 기준을 둔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악산 등산로인 관악산 공원을 지나 관악산 호수공원 일대 광장, 제4 쉼터 그리고 연주대까지 대상지로 선정하여 관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용행태를 관찰하여 동행 관계마다 어떠한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한 교류 활동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 내용에서 도출된 사회적 교류 활동인 행태 키워드로

설문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서 보여준 관찰 조사와 인터뷰 내용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여부와 빈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방법 중 실증 단계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인 경험과 그에 따라 동행 관계별 빈도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다르게,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을 이용함으로써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동행 관계별로 사회적 교류 활동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용행태 관찰 조사, 인터뷰 및 설문 조사의 분석 및 해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요소와 비슷하게 양상을 보였지만, 도시에서보다 좀 더 다양하게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에서의 교류 활동은 골목길, 도로, 단지 내, 아파트 내 옥외공간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보여지는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다르게 산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 교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이야기나 단순한 이야기, 텃밭 꾸미기, 아이들끼리 놀기 등과 같은 단편적인 교류 활동이 도시에서 일어나지만, 산에서는 가벼운 대화부터 평상시에 나누지 못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음식을 나눠 먹고 등산이라는 운동을 함께 몇 시간 동안 함으로써 함께 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둘째, 동행 관계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교류 활동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활동들의 빈도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내용으로 보아, 동행 관계에 따라서 사회적 교류 활동의 유형과 그 교류 행태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행 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류 활동의 경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인 혼자 등산하는 이용자는 동행한 사람이 없으므로 가끔 모르는 사람과 교류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2인부터 소규모 그룹, 그리고 대규모 그룹까지는 동행한 사람과의 교류 행태를 다소 많이 보였으며, 처음

만난 사람과도 교류 행태의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의 결과를 도출한 현상을 해석하여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관악산을 함께 방문한 사람과의 교류 행태도 나타났지만, 관악산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과의 교류 행태도 나타나는 것을 보아 산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활동을 통해 동행한 사람인 가까운 관계는 관계성이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될 수 있으며, 처음 만난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 활동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어 새로운 관계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교류 활동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 없으며, 아는 사람끼리의 관계인 동행 관계 내에서와 처음 본 사람의 관계인 동행 관계 밖에서 모두 다 교류 활동이 다양하게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이라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이 되며, 계속 걸어야 되고, 자연 요소 속에 다양한 주제와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행태들을 경험함으로써 산의 속성이 사회적 교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과 제한된 교류 행태를 가진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산에서의 교류 활동 비교 양상을 고찰하여, 추후 산림 복지 서비스, 산림 기본 계획, 산림에서의 시설 계획과 같은 제도나 정책을 추진 시, 본 연구가 기초조사 자료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 교류 활동, 교류 행태, 도시 근교, 산림, 동행 관계

▌학번 : 2021-24862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1
1. 연구의 배경 ····· 0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03

2절. 연구의 범위 ····· 04
1. 연구의 범위 ····· 04
2. 대상지 선정 이유 ····· 07
3. 연구의 방법 ····· 10

3절. 연구의 흐름 ····· 1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절. 산지 이용과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 ····· 16
1. 산에서의 이용행태 연구 ····· 16

2절.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이해 ····· 19
1. 사회적 교류 활동의 개념 ····· 19
2.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 24

3절. 연구의 차별성 ····· 26

제3장 관악산에서 이용행태 분석

1절.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분석 ····· 27
1. 이용행태 분석의 틀 ····· 27
2.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 32
3. 심층 인터뷰 개요 ····· 43

2절.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빈도 분석 ····· 49
1.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빈도 분석 ····· 49
2. 공간별 이용행태 빈도 분석 ····· 54

제4장 사회적 교류 활동으로서 관악산

1절. 이용행태를 통한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 65
1. 설문개요 ····· 65
2.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 ····· 69

2절. 소결 ····· 98
1. 관악산에서의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유형 ····· 98
2.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특성 ····· 100

제5장 결론

1절. 연구 결과 ····· 103

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 ····· 106

[참고 문헌] ····· 107
[부 록] ····· 112
[Abstract] ····· 119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범위 선정 ····· 06
[표 1-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100대 명산 ····· 08
[표 1-3] 교류 행태 조사를 위한 분석의 틀 ····· 11
[표 1-4] 관찰일시 ····· 12
[표 1-5] 인터뷰 세부 항목 ····· 13
[표 2-1] 산에서의 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 18
[표 2-2] 연구별 사회적 교류 활동 정의 ····· 21
[표 2-3] 학자별 사회적 교류 활동 정의 ····· 23
[표 2-4]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 25
[표 3-1] 얀겔의 이용행태 관찰 방법 ····· 28
[표 3-2] 본 연구의 행태 조사의 틀 ····· 30
[표 3-3]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1 (S1-주중) ····· 34
[표 3-4]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2 (S2-주중) ····· 35
[표 3-5]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3 (S3-주중) ····· 36
[표 3-6]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4 (S4-주중) ····· 37
[표 3-7]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5 (S1-주말) ····· 38
[표 3-8]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6 (S2-주말) ····· 39
[표 3-9]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7 (S3-주말) ····· 41
[표 3-10]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8 (S4-주말) ····· 42
[표 3-11] 심층 인터뷰 응답자 개요 ····· 44-45
[표 3-12]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빈도 분석 - 주중 ····· 51
[표 3-13]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빈도 분석 - 주말 ····· 53
[표 3-14] 대상지 공간별 교류 행태 ····· 55
[표 3-15] 교류 행태 빈도 분석 (S1-S4) - 주중 ····· 62
[표 3-16] 교류 행태 빈도 분석 (S1-S4) - 주말 ····· 64
[표 4-1] 설문 조사 질문 개요 ····· 66-67
[표 4-2] 설문 조사 결과 2-2. 질문 외에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 74
[표 4-3] 설문 조사 결과 3-5.

관악산 등산 시, 좋아하는 장소 및 체류 시간 ····· 95
[표 4-4] 설문 조사 결과 3-6. 관악산 등산 시, 다른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 97

그 림 목 차

[그림 1-1] 관악산 등산로길 (대상지 루트) ····· 04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15
[그림 3-1] S1 - 대화하면서 걷기 ····· 56
[그림 3-2] S1 - 스트레칭하기 ····· 56
[그림 3-3] S2 - 앉아서 대화하기 및 전화 통화 ····· 57
[그림 3-4] S2 - 앉아서 대화하기 ····· 57
[그림 3-5] S2 - 앉아서 대화하기 및 짐 정리 ····· 57
[그림 3-6] S2 - 앉아서 대화 및 음식 먹기 ····· 57
[그림 3-7] 앉아서 대화하기 ····· 58
[그림 3-8] 앉아서 대화 및 음식 먹기 ····· 58
[그림 3-9] S3 - 앉아서 대화하기 ····· 59
[그림 3-10] S3 - 앉아서 통화하기 ····· 59
[그림 3-11] S3 - 앉아서 전화 통화 ····· 59
[그림 3-12] S3 - 앉아서 대화하며 사진 찍기 ····· 59
[그림 3-13] S4 - 앉아서 음식 먹기 ····· 60
[그림 3-14] S4 - 음식 먹기 및 사진 찍기 ····· 60
[그림 4-1] 설문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 정보 (단위:%) ····· 70
[그림 4-2] 설문 조사 결과 2-1.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72
[그림 4-3] 설문 조사 결과 3-1.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 1인 (단위:%) ····· 79-80
[그림 4-4] 설문 조사 결과 3-2.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 2인 (단위:%) ····· 83-85
[그림 4-5] 설문 조사 결과 3-3.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 3-5인 (단위:%) ····· 88-90
[그림 4-6] 설문 조사 결과 3-4.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 6인 이상(단위:%) ····· 92-94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등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뿐만 아니라 자연풍경감상, 숲속 문화 체험, 둘레길 걷기, 산림욕 등 다양한 활동이 산에서 이루어지면서 산림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2030세대의 산행이 증가하고 있고, 산스타그램도 유행화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동적 휴식, 신체적, 정신적, 사회교류적 휴식을 산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사람은 연인, 가족, 친구 그리고 동호회 등과 같은 다양한 관계와 함께 등산하며 휴식과 친목 활동을 목적으로 산을 방문한다. 또한, 등산을 하면서 대화하고, 사진 찍는 것과 같은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행한 관계로부터 교류 활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행태를 파악하고, 동행 관계에 따라 교류 활동과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산림휴양 복지 활동 조사 (산림청, 2021)에 따르면, 20년 기준 만 15세 이상 국민의 79.2%가 산림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중 50~59세 사람들이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을 85.5%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며, 15~19세는 68.3%로, 20~29세는 72.9%로, 30~39세로 81.5%로, 40~49세로, 60세 이상은 75.5%로, 나이대별로 대부분 50%를 넘으며, 2020년 기준 국민의 79.2%가 산림을 경험한 비율보다 대부분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2021). 이렇듯, 최근 들어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 안이나 근교에 위치한 공원, 산 등에 대한 방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가 산을 많이 방문하며, 그 빈도가 높아져 산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등산 활동은 숲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4명은 연간 1회 이상 등산 활동을 하고 있고, 대략 462백만 명이 등산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기준, 2011).

등산 활동은 최근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이며 취미활동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가시간을 증가시켜 그 시간에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활동을 찾는 추세가 보인다.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등산, 숲길 걷기, 트레킹 등과 같은 활동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기준, 2011).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산림에서 자연풍경감상, 등산 그리고 산책이라는 다양한 활동을 산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림을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취미 및 레포츠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림을 방문하는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청, 2021).

이에 따라 산림청(2021)에서는 이용목적, 수요 및 선택기준 등을 바탕으로 관련된 산림복지서비스를 개설하고 있다. 실제로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2022) 자료에 의하면 산림 내 휴양 시설은 14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 증가하였다. 산림청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리도록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및 둘레길, 산림교육 및 산림치유라는 다양한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휴양 복지활동조사 (산림청, 2021)에 따르면, 산림을 경험한 시민들 중 97.1%가 산림 경험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시민들은 건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증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에 교류가 감소하였으며, 교류 활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람들과의 단순한 만남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교류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사회적

교류라고 한다 (김영재, 2022). 취미 여가 플랫폼 ‘프립’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2022년 단풍산행 취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인 MZ세대들은 친구랑 함께 산행하고 싶다고 30%로, 연인과 함께 가고 싶다고 27.3%로 대답하였다. 또한,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싶어 산행을 한 2030세대들이 72.1%로 답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산을 방문하였다고 47.7%로, 인생샷을 찍기 위해 방문한 응답자는 27.3%로, 그리고 친구와 만남을 위해 산행을 간 사람들이 12.8%로 답하였다 (방준식, 2022).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산림청, 2021)를 보면, 사람들이 주로 주중 및 주말 모두 산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연인, 동료 및 친목 단체 등 다양한 관계들과 함께 산림을 동행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 비해,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 중 친목 활동이 1.2%로 증가하였고, 휴양 및 휴식이라는 목적도 3.4% 증가하였으며, 친목 활동도 1.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산림청, 2021). 최근에는 등산하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등산하는 인구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기준, 2011). 이러한 추세를 보아, 산림을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신체적인 영향 및 다양한 목적으로 산림 활동을 하여 이용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보다 더 다양하고 특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동행 관계가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해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다고 본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연구 질문 1.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교류 활동(행태)과 다르게 도시 근교의 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 질문 2.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활동(행태)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3. 동행 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류 활동(행태)의 다름과 그에 따른 특성이 있는가?

위와 같이 본 연구의 질문은 세 가지이다.

이 연구 질문을 통해, 본 연구는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활동을 관찰하며,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다르게 산에서만 특정하게 일어나는 교류 활동(행태)을 정리하며, 그 행태의 빈도를 분석하여 도시 근교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혼자 (1인),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 (2인), 소규모 그룹 (3 - 5인), 대규모 그룹 (6인 이상)으로 기준을 두어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행태를 관찰하고 고찰하여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동행 관계에 따른 교류 활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도시 근교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밝히며 동행 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류 활동의 의미를 고찰하여, 추후 산림 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산림 기본계획 등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에 기초조사자료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래 [그림 1-1]과 같이 서울대 입구 근처(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 앞)인 관악산 공원을 시작으로, 관악산 호수 공원을 지나 관악산 제 4 야영장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인 연주대로 이루어진 등산로이다. 지정된 등산로에서 산행할 수 있는 등산로와 중간에 쉬는 지점 4곳을 중심으로 행태 관찰 조사를 하고 그 행태에 따른 빈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림 1-1] 관악산 등산로길 (대상지 루트) (지도 출처 : 네이버 지도)

▌ 내용적 범위

산림청(2021)의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에 따르면,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의 정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여가 및 휴식 목적으로 방문하는 숲, 산, 도시 숲 등과 같은 산림 또는 산림에 있는 시설에서 휴식, 예술, 취미, 사회참여, 운동과 레포츠 같은 체육활동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의 유형은 일상형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 당일형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 그리고 숙박형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집 근처에서 자주 또는 짧게 활동을 하는 것을 일상형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이라고 하며, 하루에 4시간 이상 (이동 시간을 포함한 경우)을 할애하여 산림에서 활동하는 것을 당일형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이라고 한다. 최소 1박 2일 이상의 일정으로 산림에서 활동하는 것은 숙박형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이라고 한다.

산림휴양 및 복지 활동의 종류로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활동인 등산, 산림을 걸어 다니는 활동인 산책, 산림을 따라 만들어진 길이나 둘레길을 걷는 활동인 트레킹, 산림 속에서 야생 동식물, 계곡, 숲 등 자연을 감상하는 활동인 자연풍경감상, 야생의 동식물을 관찰하거나 탐구하는 활동인 동식물 관찰 및 학습, 산나물, 약초, 열매,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며 체험하는 활동인 임산물 수확체험, 건강 증진을 위해 산림을 산책하는 활동인 산림욕 등등이라고 본다 (산림청, 2021).

그뿐만 아니라,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산림청, 2021)에 따르면, 일상형 산림휴양으로 산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는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친목 단체 등과 동행하는 것을 보아 다양한 관계들이 함께 산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에 비해,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이 1.7%나 증가하였으며, 혼자 산림을 방문하는 비율도 3.9%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등산을 같이하는 모임이나 친목 단체 (및 동아리)도 2019년에 비해 0.4%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직장 동료나 친구 및 연인과 함께 산림을 이용하는 것이 각각 0.2%, 2.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산림청, 2021).

[표 1-1] 연구의 범위 선정

대상지 범위 (공간적 범위)	관악산 등산길 ⇓ (관악산 공원 - 관악산 호수 공원 - 관악산 제 4 야영장 - 연주대)
대상자	동행 관계에 따라 선정 ⇓ 1인 (혼자) 2인 (연인 / 친구 등) 3인 - 5인 (가족 / 친구 등) - 소규모 그룹 6인 이상 (친목 단체 및 모임) - 대규모 그룹

위에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Target Group)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관찰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참고해야 할 사항 기준까지 선정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산림을 이용하는 동행 관계에 따라, 크게 4그룹으로 선정하였다. 혼자 등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1인, 친구 및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2인,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등산하는 3인 - 5인의 소규모 그룹, 그리고 6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친목 단체 및 모임(동아리) 대규모의 그룹으로 구분 지어 대상자의 기준을 선정한다.

지정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혼자, 2인, 소규모 그룹(3인 - 5인) 그리고 대규모 그룹 (6인 이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류 행태와 각 집단끼리 보여주는 교류 행태를 연구한다.

2. 대상지 선정 이유

관악산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8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관악산은 예로부터 송악산, 감악산, 운악산, 화악산과 함께 경기 5악으로 불리였으며 그중 가장 수려한 곳으로 유명한 산이다 (숲과문화연구회, 1996). 또한,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서울의 서남부권 일대는 자연환경인 도시 숲, 숲 등이 사라져갔지만, 관악구는 관악산이 도시 내 자연환경이자 산림녹지로 크게 자리하고 있어 도시 근교에 산림녹지이며 도시 숲 (Urban Forest)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담 외, 2018).

관악산은 서울시 관악구와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에 걸쳐 있어 도심 내 누구나 쉽게 찾는 산이며,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관악산은 서울 관악구 행정구역 중 59.4%, 금천구 행정구역 중 11%,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 행정구역 중 29.6%로 분할되어 있다 (박정열, 2010).

관악산은 무장애 등산로를 모자봉 일대에 조성하며, 관악구는 관악산을 대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무장애 등산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류래호 외, 2019). 최근에는 관악산 공원 무장애 숲길, 관악산 공원 이용 프로그램, 그리고 관악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 등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1-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100대 명산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마니산	감악산	소요산	명성산	백운산	명지산	운악산	축령산	천마산	유명산	용문산
위치	서울 특별시, 경기도	서울 특별시, 경기도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접근성	신림선 (2분) 2호선 (13분) 등등	주차장 및 버스 (5분 거리)	버스 (2분 거리)	주차장 및 버스 (3분 거리)	버스 (4분 거리)	1호선 (25분 거리)	버스 (40 거리)	버스 (입구 바로 도착)	버스 (입구 바로 도착)	버스 (2분 거리)	버스 (3분 거리)	버스 (16분 거리)	버스 (5분 거리)	버스 (3분 거리)
등산 난이도	초•중급	중급	중급	초•중급	초급	초•중•고급	중급	중급	중급	고급	중급	초•중급	초급	고급
특징	1968년 도시자연 공원 지정	1983년 국립 공원 지정	1983년 국립 공원 지정	사적 제 136호인 참성단이 있음	-	-	-	-	-	-	-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	천연 기념물 제30호 은행나무
상세 정보	*관악산 철쭉제 *무장애 숲길 등		*회룡사, 원통사와 같은 사찰이 많음			*입구에 시설 등이 있음	*명성산 억새꽃 축제		*명지 계곡이 유명함	*병풍 바위가 있어 경관 수려함	*자연 휴양림 조성 *삼림욕장 등		*캠핑장 *휴양 시설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음

본 연구의 대상지인 관악산은 북한산, 도봉산처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사이에 있어, 서울 시민들과 경기 도민들의 안식처이자 서울 및 경기도 곳곳에서 등산을 위해 쉽게 방문하는 산이다. 또한, 관악산은 신림선 개통으로 인해, 신림선 관악산 역에서 관악산 공원 입구까지 2분 거리이며,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나 낙성대역에서도 약 13분 거리이며, 4호선 과천역에서 관악산 입구(과천향교)까지 도보로 13분 거리로 대중교통 이용 시, 접근성이 매우 좋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마니산, 경기도에 있는 천마산과 같이 등산로의 난이도가 초•중급으로 되어 있다. 1968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악산은 1일 평균 10-1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산이다 (박정열 외, 2010).

또한, 관악산은 무장애숲길, 둘레길, 관악산 공원 프로그램,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 유아숲체험원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용시설들이 제공되고 있다. 1988년 6월 18일에 관악산 제 1 광장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그 뒤로 매년 관악산에서는 '관악산 철쭉제' 행사를 열었다. 그리하여, 이 축제는 관악구 구민의 전통문화와 지역의 역사성이 담긴 특성이 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지역축제가 되었다.

이렇듯 본 연구의 대상지인 관악산은 서울 시민들과 경기 도민들의 안식처이자 접근성이 매우 좋아 사람들이 쉽게 방문하는 산이다. 등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사람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산이다.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 등 다양한 곳에 등산로 입구가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초•중급의 등산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는 관악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 근교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의 방법

▌연구 과정

본 연구의 연구 과정은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관악산에서 이용행태 관찰 조사 및 분석,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연구 방법

(1) 이론 및 선행연구

본 연구의 키워드인 이용행태, 사회적 교류 활동,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교류 활동의 개념을 정리한다. 산에서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여 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태에 대한 관찰 조사 방법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개념 및 교류 활동에 포함되는 행태를 도출한다. 정리된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행태 및 지표는 본 연구의 교류 행태 관찰 조사에 관한 연구의 틀에 적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관악산에서 이용행태 관찰 조사

두 번째 연구 방법은 관악산 내 특정 지점(특정 공간)을 선정한다. 특정 지점은 관악산 등산로 중 관악산 공원 입구, 관악산 호수 공원 일대, 제 4 쉼터, 연주대로 크게 네 공간으로 지정하였다. 특정한 지점뿐만 아니라 등산로에서 휴식할 수 있는 벤치, 바위, 등과 같은 공간과 등산로에서도 함께 관찰하였다.

[표 1-3] 교류 행태 조사를 위한 분석의 틀 (출처 : 얀겔, 1968, 2013 참고하여 재구성)

관찰 항목	내용
행태 종류	걸으면서 대화, 서서 대화, 앉아서 대화, 사진 찍기, 음식 나눠 먹기 등
빈도	각 행태마다 빈도 횟수 세기
물리적 환경	관악산 등산로 (관악산 공원부터 연주대까지)
특정한 행태	악수하기, 같이 스트레칭 하기, 얘기하기, SNS교류 등

각 특정 지점을 선정한 뒤, 제시된 사회적 교류 활동 (행태) 지표를 기준으로 1인, 2인, 소규모 그룹인 3인 - 5인, 대규모 그룹인 6인 이상인 동행 관계에 따라 행태 종류를 서술하고, 그 행태 종류에 따라 일어나는 빈도 횟수를 작성한다. 빈도 횟수는 지정된 네 지점에서만 관찰하고 작성한다.

[표 1-4] 관찰일시

	관찰일시	주일	날짜	시간
이용행태 관찰 조사 및 빈도 조사	2022년 9월 25일	주말	햇빛	11:00 am ~ 2:30pm
	2022년 9월 28일	주중	햇빛	10:30 am ~ 2:00 pm
	2022년 10월 2일	주말	햇빛 / 비	10:30 am ~ 2:40pm
	2022년 10월 7일	주중	햇빛	11:03 am ~ 3:34 pm
	2022년 10월 15일	주말	햇빛	10:20 am ~ 2:00 pm
	2022년 11월 11일	주중	햇빛	10:30 am ~ 2:20 pm
	2022년 11월 13일	주말	햇빛	10:45 am ~ 2:55 pm
	2022년 11월 14일	주중	햇빛	10: 46 am ~ 2:45 pm
	2022년 11월 20일	주말	햇빛	10:32 am ~ 3:00 pm
	2022년 11월 21일	주중	햇빛	11:10 am ~ 3:24 pm
인터뷰	2022년 9월 28일	주중	햇빛	10:30 am ~ 2:00 pm
	2022년 10월 2일	주말	햇빛 / 비	10:30 am ~ 2:40pm
	2022년 11월 20일	주말	햇빛	10:32 am ~ 3:00 pm

(3) 인터뷰

인터뷰는 관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과 직접 경험한 교류 행태를 알아보고자 크게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관악산에서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크게 응답자에 대한 일반 정보, 응답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악산을 방문하였을 때,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해 기준을 두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연령대, 관악산 방문 시 응답자가 함께한 사람은 누구인지,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 및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정리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뒤 정리된 개념 또는 앞서 응답자가 언급한 교류 활동 중 관악산 등산 시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행태에 대해 질문한다.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질문은 함께 등산한 사람과의 교류 활동과 관악산에서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과의 교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이로 인해, 관악산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5] 인터뷰 세부 항목

분류	세부내용
일반 정보	연령대
	동행 관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정의 (응답자의 다양한 답변)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다른 점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관악산에서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 (아는 사람과 함께 / 모르는 사람과 함께)

(4) 설문 조사

마지막 연구 방법으로는 앞서 제시된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에서 도출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일반 정보, 관찰 조사와 인터뷰에서 도출된 교류 활동 키워드 중심으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동의하는지 또는 비동의하는지를 질문한다. 그리고 관악산에서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질문으로는 교류 활동 키워드 중심으로 등산할 때, 함께한 사람과의 교류 활동의 빈도와 관악산에서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과의 교류 활동의 빈도를 질문한다. 질문 항목들은 본 연구의 연구 기준인 동행 관계별(1인, 2인, 소규모 그룹, 그리고 대규모 그룹)마다 각 교류 활동의 키워드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이용행태 관찰 조사, 인터뷰 그리고 설문 조사를 통해 산에서 일어나는 교류 활동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며, 실증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에서 동행 관계별 교류 활동의 빈도를 통해 빈도수가 높은 교류 행태와 직접 경험한 교류 행태를 정리하여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으로 연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절. 연구의 흐름

연구 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 방법
1 단계 제 1장.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 질문하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2단계 제 1장.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	대상지 선정과 연구 방법 설정
	대상지 선정이유	
	연구의 방법	
▼		
3단계 제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사회적 교류 활동’ 개념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산에서의 이용행태 연구 2. 사회적 교류 활동의 개념 3.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		
4단계 제 3장.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분석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분석	연구의 틀 및 행태 관찰 조사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빈도분석 (동행 관계별, 공간별)	행태 관찰 조사 및 인터뷰
▼		
5단계 제 4장. 사회적 교류 활동으로서 관악산	이용행태를 통한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설문 조사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		
6단계 제 5장. 결론	연구 결과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과제	

도시 근교 산지 이용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활동 양상 고찰 연구
: 관악산을 중심으로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절. 산지 이용과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

1. 산에서의 이용행태 연구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산에서의 이용행태를 관찰해야 한다. 산에서의 이용행태는 주로 산림 프로그램, 걷기 또는 등산한 거리와 시간, 등산로를 관찰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령대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이용행태 관찰을 통해, 신체적 활동 또는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할 수 있다. 산에서의 이용행태 관찰 방법은 도시에서의 행태 관찰 방법보다 공간적, 행태적으로도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산림 트레킹 운동을 탐구한 연구는 산림 트레킹 코스의 난이도, 폭, 총 거리, 휴식 장소 등의 사항을 측정하여 총 거리 3.5km로 기준으로 10주간 주 2회 산림 트레킹 운동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한용 외, 2018). 다른 연구에서는 32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320명 중 스트레스 취약한 사람인 스트레스 검사 결과 4점 이상인 사람들만 간추려져서 180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간추려진 180명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숲에서 가벼운 운동을 권장하였다 (김보균 외,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유숲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의 연령대, 성별, 접근시간, 교통수단, 방문횟수, 동반자, 방문목적, 만족도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숲길에서 급격한 커브 지점이나 식생의 변화지점 등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주요지점 12곳을 지정하여, 그 공간 중 이용객들이 치유되었던 3곳을 선정하여 그 공간에서 치유가 된 요인과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행태 조사를 하였다 (장윤선, 2017).

이용행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휴양림의 방문경험, 다른 휴양림의 방문경

험, 이동 시간, 휴양림을 가기 위한 이동 수단, 동행 유형, 동행 인원 휴양림에서의 주요 활동, 주요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연구도 있다 (최가영 외, 201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산, 레저스포츠, 트레킹, 휴양 및 치유 등의 활동을 하러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2달간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말마다 숲길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하고 나서 설문조사와 일대일 면접을 한 연구도 있다 (손지원, 하시연, 2012). 자연이 좋아서 숲길을 방문한 대상자들이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 완화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동 시간이 1시간 이하로,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북한산 둘레길은 주로 가족과 함께 이용하였고,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방문빈도도 다른 둘레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비해, 지리산 둘레길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연인 등과 동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 방문빈도가 낮다고 결과를 보여준다 (손지원, 하시연, 2012).

앞서 언급한 내용을 아래에 [표 2-1]으로 정리하였다. 언급되었던 선행연구들에서 산림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대상자의 기준을 먼저 연구 목적에 알맞게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용행태 조사와 분석한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나이대별, 또는 특정 나이대를 선정하여 기준을 잡아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산림이라 숲길에서 활동하거나 운동, 걷기,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노출시킨 후, 설문 조사나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 중, 장윤선(2017)의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공간에 초점을 두어 대상자들이 특정한 공간들만 방문하게 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치유가 되는 곳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연구들과 달리, 대상자의 기준보다는 공간의 특정 지점 (터닝포인트의 지점 12곳)의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들의 이용행태 조사가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관찰을 위해, 관악산에서의 특정한 지점을 선정하여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행태를 관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대가 아닌 관악산을 방문하는 동행 관계에 따라 교류 행태를 관찰하고 분석한다.

[표 2-1] 산에서의 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제목	저자 및 년도	연구 내용	연구 대상자
산림 걷기 운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보균 외 2014	하루에 1시간 이상 숲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함.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함.
산림 트레킹 운동이 여자 대학생의 신체구성, 최대근력 및 주관적 건강 정도에 미치는 영향	이한용 외 2018	10주동안 산림 트레킹을 시킴. 운동강도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총 거리 3.5km를 10주간 주당 2회 실시함	20대 여자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연구함.
산림욕을 활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우울증해소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유영선 외 2014	산림욕을 활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함	성인 여성 50대를 대상으로 연구함.
치유숲길의 공간특성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한일간 치유숲길 사례 비교 중심으로 -	장윤선 2017	숲길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이용객들이 그중 치유가 되었던 곳을 지정함.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구함. 연령대, 성별, 접근시간, 교통수단을 기준을 두어 설문조사함.
IPA를 활용한 자연휴양림 운영주체별 이용행태 및 관리방안 연구	최가영 외 2016	이용행태 특성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함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구함.
숲길 특성에 따른 이용객의 이용행태 비교에 관한 연구	손지원, 하시연 2012	2달간 대상들은 주말동안 숲길을 방문하게 함.	방문자를 중심으로 연구함.

2절.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이해

1. 사회적 교류 활동의 개념

사회적 교류 활동을 보면 ‘커뮤니티’, ‘공동체’, ‘네트워크’, ‘관계성’, ‘함께 하는 행위 및 행태’라는 키워드로 유사한 개념 용어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교류 활동의 개념은 연구의 환경, 유형, 관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아파트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은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두어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되어 진다. 도시 내 골목길 등과 같은 환경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은 ‘이웃 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용어로 정의되며,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본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도 도시 근교 산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의 양상을 관찰하여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과 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별 사회적 교류 활동을 정리한 개념은 다음 [표 2-2]과 같다. 한경혜와 최희진(2018)은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으로 기준을 두어 그 기준에 따라 교류 활동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자녀와의 대화, 형제 자매와의 만남 및 대화, 친구와의 만남 및 대화, 이웃과의 만남 및 대화 등으로 구분 지어 사회적 교류 활동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연구로써, 박정수(2019)의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관계로부터 사회적 교류 활동이 달라지며, 사회적 접촉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회적 접촉이 많을수록 사회적 활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관계성을 중점을 둔 연구와 다르게,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교류 활동을 설명한 연구들이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을 고찰하였다. 공동체 의식을 느낀 뒤,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이 친밀감이 형성되는 활동을 사회적 교류라고 정의 내렸다(우룡, 1995).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애

착이 형성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상호 교류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호교류 활등을 사회적 교류 활동의 정의 중 일부로 정의했다 (최열 외, 2007). 또한, 거주 기간이 오래된 노인 거주자의 경우, 이웃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양상을 밝혔다. 이웃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친밀감이 형성된다. 이 친밀감에서 단순한 대화가 형성되고, 이 단순한 대화가 교류 활동 중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노인 거주자들에게는 이러한 교류 활동을 하게 되면, 교류 활동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서현보, 2020).

공간에 중점을 두어 공간에 따른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의미나 특성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주택가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길에서 거주민이나 이웃들끼리 담소나 놀이, 운동 등과 같은 공유된 경험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최유선, 노시학, 2000). 이러한 활동들을 더욱 많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들의 참여 빈도가 높아진다면, 더 강한 공동 유대감도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유선, 노시학, 2000). 그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골목길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적 교류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 (구자훈, 김슬옹, 2009).

이렇듯, 사회적 교류 활동은 관계성, 물리적 환경요소 (공간), 공동체 의식 및 커뮤니티 형성 등과 같은 기준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며, 그에 따른 행태와 특성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2] 연구별 사회적 교류 활동 정의

연구	저자 및 년도	내용
도시노인의 사회적 교류, 신체활동과 일상적 행복감의 관련성 : 개인특성의 맥락효과를 고려하여	한경혜, 최희진 2018	대상과 접촉 형태에 따라 달라짐. 자녀와의 대화, 형제자매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등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음.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학교와 노인복지관의 복합화 공간계획	이도현 2020	아이들에게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처음 배워가는 공간, 노인들에게는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회복하는 공간. 세대간 사회적 교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중심이 되는 공간은 '온실'
사회적 접촉 및 사회 활동 참여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박정수 2019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관계로부터 사회적 접촉이 생겨나며, 그 접촉이 많을수록 사회적 활동이 높아짐
서울특별시 골목기 담장허물기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자 특성 분석	구자훈, 김슬옹 2009	골목길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침
아파트단지주민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주민 관계 분석	우룡 1995	공동체의식을 느끼며, 친밀감이 형성되는 활동을 사회적 교류라고 함.
공동주택 단지설계요소 및 거주자 특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최열 외 2007	공동체애착이 형성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교류를 하는 활동
분양아파트 단지와 임대 아파트 단지 거주민의 공동체의식 비교 분석	유재완 외 2015	희생과 양보, 참여와 주체의식에 의미를 강조.
한국 노인의 사회적 교류와 동네 장소의 복지 활용 가능성을 위한 질적 연구	서현보 2020	거주 기간이 오래된 경우, 이웃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며 친밀감이 향상 됨. 교류 행태에서 단순한 대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교류 활동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임.
주택가 길의 차량통행이 도시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	최유선, 노시학 2000	담소나 놀이, 운동 등과 같은 공유된 경험은 사회적 교류 활동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런 활동들을 참여하므로써 더 강한 공동 유대감을 느끼고 형성 가능함.

Jan Gehl (1987)에 주장한 사회적 활동 (Social Activities)는 도시 및 주택의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 필수적, 선택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적 활동이라고 개념을 주장하였다 (구자훈 외, 2009). Jan Gehl (1987)은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활동을 선택적 활동, 필수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필수적 활동에는 출•퇴근,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해야만 하는 활동이며, 선택적 활동은 산책하기, 만나서 대화하기 등과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만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은 사람들이 행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외부 공간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이용행태가 이루어지는 활동을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며, 사회적 성향이 매우 강한 활동이라고 한다 (구자훈 외, 2009).

Havighurst (1968)는 활동 이론가로서, 활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또한, 노년기의 사람들에 초점을 두어 노년기에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가지는 행위가 나이가 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llan (1979)는 생활 속에서 사회적 행위를 하며,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한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커뮤니티가 형성됨으로써, Allan은 그 현상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의 교류 활동이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한다. Jacobs (1961)는 '길'이라는 공간은 만남을 형성하는 공간이며, 도시 형성에 있어 근본적인 요소라고 했다. 또한, 도시 내에서 활발하고 활동이 가장 많은 공간을 '길'이라고 했다. Jacobs는 도시 내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길'에서 다양하고 깊고 구체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된다고 한다. 이것을 도시 내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본다.

[표 2-3] 학자별 사회적 교류 활동 정의

학자	년도	내용
Havighurst	1968	활동 이론에서, 노년기에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가지는 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Jan Gehl	1987	주택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필수적, 선택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적 활동'을 구분함
Allan	1979	사회적 행위와 생활을 이루어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며, 그 안에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에 초점을 둠
Jacobs	2011	'길'이라는 만남의 공간은 도시 형성의 근본적인 요소임. 도시 내에서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길'에서는 활발하고 구체적인 커뮤니티 형성이 됨.
Unger & Wandersman	1985	대화를 하거나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등 함께하는 다양한 행태를 의미. 눈 마주침, 끄덕임, 이벤트 관림 및 참여 등과 같은 행태도 사회적 교류 활동에 포함.
Volker, Flap & Lindenberg	2007	이웃 간의 만남, 활동이나 이벤트에 참여 등과 같은 행태 및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행위. 커뮤니티 의식과 사회성이 증대시킬 수 있음.

2.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길,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공공장소, 아파트 내 옥외 공간 등과 같은 공간들은 도시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관한 연구가 더 많으며,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개념이 도시라는 공간에 초점을 두어 정의한다. 본 연구는 산에서의 교류 행태와의 차이, 교류 활동의 유형의 구분을 위해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유형, 교류 행태와 물리적 환경을 연구별로 정리하였다.

유재환 외(2015)의 연구를 보면, 분양아파트 단지와 임대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류 행태를 분석하여 각 단지 내 거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그리고 연대감을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이와 같이, 장동현과 박수빈(2013)의 연구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옥외 공간을 선정하여, 그 공간에 따른 이웃과의 관계 및 교류 활동을 고찰하였다. 각 옥외 공간에서 관찰한 교류 활동으로는 이웃과 우연히 만남으로써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잠시 시간을 내어 가벼운 대화를 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거나 도울 일이 있을 도움을 주는 행태로 기준을 두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이웃 간에 서로 교류 활동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의식이 생겨,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행태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에서 얼마만큼 행태가 발생하였는지에 중점되었다. 최유선과 노시학(2000)의 연구를 보면, 도시 내 길이나 도로에서 사회적 교류와 잠재적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앞서 언급된 아파트 내 옥외공간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달리, 길이나 도로에서는 주민들이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고, 주민들끼리 바둑이나 장기를 하며, 길이나 골목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친목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골목길이나 도로에서 취미 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담에 기대어 대화하거나 담에 기대앉아서 대화하는 행태도 볼 수 있었다 (구자훈, 김슬옹, 2009).

[표 2-4]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연구자	유형화	행태	물리적 환경
유재완 박미규 황희연	공동체 의식, 소속감, 연대감	이웃과 만나서 가벼운 인사, 간단한 대화, 쇼핑하기 등 봉사활동 참여의사, 개선 활동 참여 의사 등등	분양아파트 단지와 임대 아파트 단지
최유선 노시학	사회적 교류, 잠재적 사회적 교류	주민들끼리 우연히 만나서 대화, 주민들끼리 길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함, 친목을 위한 모임 활동, 길에 나와서 쉼, 줄넘기, 체조 등의 운동 등등	길, 도로 등
김태완 장미선	옥외 공간별 행태 분석	대화, 휴식, 산책 및 이동, 놀이, 운동 등등	아파트 옥외 공간
Huang, Lin and Lien	정적 행태 동적 행태	정적 형태 - 앉기, 먹고 마시기, 말하기, 일기 동적 형태 - 걷기, 서기	공원 등 도시 내 옥외공안
Kim and Park	-	휴식, 정원 및 텃밭 꾸미기, 산책, 담소 및 오락 등	옥외공간
Won	일상생활행위 비일상생활행위	일상생활행위 - 등교, 하교, 출근 퇴근 등 비일상생활행위 - 산책, 이사, 축제, 만남, 기다림, 마중, 산책, 운동, 휴식 등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
Kwak, Park, and Kim	각 세부 공간별로 행태를 유형화 시킴	대화, 운동, 휴식, 산책, 놀이, 마중 등	고층 아파트 단지의 옥외공간
장동현 박수빈	커뮤니티의식	옥외공간유형에 따른 이웃 관계 - 가벼운 인사, 간단한 대화, 서로 도움 등	아파트 단지 내
구자훈 김슬옹	사회적 활동 (대화 중심, 대화 및 휴식 중심, 놀이 중심)	골목에서 대화하고 휴식함, 담에 기대서 대화, 담에 기대 앉아서 대화, 서서 대화하기, 놀이 등등	골목길 (서울특별시)

3절. 연구의 차별성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행태를 관찰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 노인 또는 40대 및 50대 주부 등과 같은 특정 연령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특정 연령대가 보여주는 이용행태 및 그에 따른 요인 등과 같은 연구는 많지만, 동행 관계에 따라 보이는 이용행태에 중점을 둔 연구의 관점이 다소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관한 연구는 원래 알고 지내던 주민, 친구, 가족 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만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1인(혼자), 2인(연인, 친구 또는 가족), 3-5인(소규모 그룹), 그리고 6인 이상(대규모 그룹)으로 관악산을 방문 할 때, 동행 관계에 기준을 두어 각 동행 관계마다 보여주는 교류 행태를 고찰하며, 동행 관계 내에서(즉, 아는 관계) 그리고 관계 밖에서(즉, 모르는 관계 및 처음 보는 관계)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파악하여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교류 활동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도시 내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교류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미치는 물리적•비물리적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다소 많이 보인다.

산림 이용을 통해 사회적 교류 활동을 밝혀내는 연구는 미비하여 본 연구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행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교류 행태와 그 특성을 밝히는 것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제 3장 관악산에서 이용행태 분석

1절.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분석

1. 이용행태 분석의 틀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과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사람들의 교류 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환경적으로는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로는 '연령대' 및 '아는 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교류 활동은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교류 활동의 특성과 관계에 따라 보이는 특성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시 근교 산인 관악산에서 동행 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이용행태 분석의 틀이 필요하며, 이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류 활동에 대한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이용행태 관찰 방법 및 관찰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아래 [표3-1] 연구의 틀은 관악산에서 사람들의 이용행태와 행태의 종류에 따라 관찰된 시간 안에 얼마만큼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빈도를 관찰할 수 있도록 도출하였다. 연구의 틀은 동행 관계와 행태 종류를 기준으로, 동행 관계에 따라 어떠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보이는가에 중심을 두었다.

이 연구의 틀은 얀 겔(Jan Gehl, 2013)의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사회적 활동, 선택적 활동, 그리고 필수적 활동)의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틀의 행태 종류를 나누었으며, 본 연구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얀 겔(Jan Gehl, 2013)은 외부 공간에서의 행태를 사회적, 선택적, 그리고 필수적 활동으로 나누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류 활동에 중심을 두어 연구를 해야 하므로 교류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태 종류를 모두 기

준으로 두었다. 얀 겔(Jan Gehl, 2013)의 연구 틀에서, 대체로 많이 이루어지는 교류 행태는 같이 놀기, 앉아서 대화하기, 만나기, 같이 산책하기, 구경하기, 상점을 향해 걷기, 지켜보기 등이 있었다. 이 기준은 골목길, 도심 속에서 가로 등과 같은 도시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여준다 (윤정우, 2015).

[표 3-1] 얀 겔 (Jan Gehl, 2013)의 이용행태 관찰 방법

관찰 방법 / 이용 행태	사회적 활동 Social Activities	선택적 활동 Optional Activities	필수적 활동 Necessary Activities
서기	놀이	(한가로이)서성이기, 운동하기, 먹고 마시기, 사진찍기, 구경하기, 서서 즐기기 등등	업무 관련 활동 (옥외정비, 택배 등), 사람 기다리기
앉기	만남, 대화	햇볕쬐기, 책읽기, 밖에서 집안일 하기, 앉아서 즐기기	휴식 (앉아서 쉬기)
걷기	대화, 같이 산책하기	산책, 거닐기, 구경하기, 상점을 향해 걷기	교통 환승, 택배 배달

출처: 윤정우 (2015) 재인용

본 연구는 도시 근교 산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의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행 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류 활동의 양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도시 근교 산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적합한 이용행태 항목만 추출한다.

본 연구의 이용행태를 관찰 조사하기 위한 분석의 틀은 다음 [표 3-2]와 같다.

본 연구의 틀은 산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로서 도시에서와 비슷한 행태도 있지만,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기 위해 행태 종류의 기준을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기타 부분에서는 그 공간에서 또는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행태를 적어놓았다. 연구의 틀에서 행태 종류는 서서 대화하기, 걸으면서(산행)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스트레칭 및 운동, 사진찍기, 음식 나눠 먹기로 기준을 두어 행태 관찰 조사를 하였다. 이용행태를 관찰 조사하여 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태의 유형과 그에 따른 빈도, 이용행태 발생공간에 따라 나타나는 행태 유형을 분석하고자 다음 표 8과 같은 연구의 틀을 기준으로 관찰 조사하였다. 그러므로서, 산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용행태 유형과 그 특징을 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행관계의 이용행태를 통해, 산행 동행 관계끼리(원래 알고 있는 사이)의 이용행태와 다른 동행 관계끼리의 이용행태의 유형도 고찰하여 산에서의 이용행태를 동행관계별, 공간별,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동행 관계별, 공간별, 유형별 행태와 그 행태의 빈도를 분석하여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산에서의 교류 활동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표 3-2] 본 연구의 행태 조사의 틀

행태		1인		2인		3인 - 5인 (소규모 집단)		6인 이상 (대규모 집단)	
항목	행태 종류	빈도	물리적 환경	빈도	물리적 환경	빈도	물리적 환경	빈도	물리적 환경
대화	서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운동	스트레칭 및 운동								
생활	음식 나눠먹기								
	사진찍기								
기타 (추가 항목)	기타								

특정한 공간에서 이용행태 관찰 조사를 한 후, 등산하면서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총 응답자의 정보,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간단히 질의응답 하는 파일럿 형태의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응답자의 정보 영역에서는 연령대와 그날 당시 산행 시 동행 관계를 질문하였으며, 관악산에서부터 응답자의 거주지와의 거리도 질문하였다. 연

령대는 다양하게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응답자가 있으며, 동행 관계도 동호회끼리 오신 응답자들, 친구끼리 2인 또는 3인으로 이루어 오신 응답자들, 아빠와 함께 등산한 2인으로 이루어진 동행 관계도 있었으며, 연인과 함께 등산한 응답자도 있었다.

두 번째 항목은 응답자들이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질문하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교류 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자신의 언어로 정의 내린다면 사회적 교류 활동을 어떻게 내릴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질문의 답변은 만나서 대화하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교류 하는 것, 취미 공유 하기, 같은 공간에서 함께 활동하기, 운동하거나 등산하고 술마시기 등과 같은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질문하기 전에, 얀 겔(Jan Gehl, 2013)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도시에서와 다르게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활동 및 행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 항목은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을 동행한 사람과 함께한 행태와 산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 일어난 행태에 대해 자세하게 질문하였다. 직접 관악산 산행을 통해 경험한 교류 행태의 여부를 질문하였고, 있었다면 어떠한 행태가 이루어졌고, 누구와 함께 그 행태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용행태 관찰 조사를 넘어 경험한 행태 또한 교류 행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교류 행태 유형 중 하나로 포함될 뿐만 아니라 다음 이용행태 관찰 조사 시, 이용행태의 종류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2.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동행 관계별로 구분된 연구의 틀을 기준으로 관찰 조사하였다.

주중 그리고 주말에 같은 등산로를 다니면서 이용행태를 관찰 조사하였다. 이 이용행태 관찰 조사를 통해, 혼자, 친구나 연인끼리 동행한 2인 형태의 집단, 3인 – 5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 그리고 6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그룹으로 구분 지어 동행 관계별로 이용행태를 관찰 조사하였으며, 각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태와 집단과 집단끼리 이루어지는 행태 조사를 함께 하였다. 각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태는 아는 사람끼리의 이용행태로 볼 수 있으며, 그룹과 그룹끼리 이루어지는 이용행태는 모르는 사람끼리의 이용행태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룹별 동행 관계로 이용행태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였으며, 그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태도 함께 조사하여 모든 관계의 교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용행태 관찰 조사가 이루어진 공간은 관악산 내 관악산 공원 (S1), 제 1광장 (S2), 제 4쉼터 (S3), 연주대 (S4)로 크게 구분 지어 관찰되었다. 또한, 등산로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의 여부와 경험이 있었다면, 아는 사람과의 행태 또는 /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의 행태에 대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 이용행태 관찰 조사 1 (주중)

2022년 9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 이용행태를 관찰하였으며, 그 중 총 5번 2022년 9월 28일, 10월 7일, 11월 11일, 11월 14일, 11월 21일은 주중을 중심으로 관찰 조사하였다. 다음 [표 3-3]부터 [표 3-6]은 본 연구에서 지정한 4 공간 (S1, S2, S3, S4)을 중심으로 관찰된 동행 관계에 따라 보인 교류 행태를 정리하였다.

아래의 [표 3-3]를 보면, 관악산 공원 (S1)에서는 혼자 산행하는 대상자는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며 대화를 하는 경우만 관찰되었다. 하지만, 2인 이상의 그룹은 다소 다양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2인으로 온 대상자들은 걸으면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짐을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등 대부분 대화하는 행태를 자주 보여주었다. 가끔 연인이나 친구 2명이서 같이 온 대상자들은 같이 스트레칭을 하는 행태도 보여주었다. 2인의 동행 관계는 1인의 행태와 비슷하게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둘이서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3인에서 5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그룹은 앞서 2인의 교류 행태의 양상과 비슷하게 걸으면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의 행태가 있었으며,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손에 있던 물건 등을 정리하면서 그룹 내에서 대화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6인 이상의 대규모 그룹은 앞서 2인, 소규모 그룹과 달리, 같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준비 운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앉아서 대화하면서 동료나 친구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다. 관악산 공원 (S1)에서는 주로 각 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태(대화하기, 같이 스트레칭을 하기 등)가 관찰되었으며, 공간이 등산로의 시작점이라, 행태 대부분이 걸으면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등과 같은 자세만 달라진 대화하기의 행태가 다소 많이 관찰되었다.

[표 3-3]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1 (S1 - 주중)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사진찍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짐 정리하며 대화하기	물건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같이 스트레칭하기

제 1 광장 (S2)에서는 관악산 공원 (S2)보다는 각 그룹 내에서 다양한 행태가 관찰되었으며, S2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의 결과는 다음 [표 3-4]와 같다.

혼자 산행하는 대상자는 앉아서 전화(음성통화, 영상통화 둘 다 포함)하는 행태도 보였으며, 공간 특성상 벤치가 있어 짐을 정리하면서 처음 본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벤치에 앉은 처음 만난 옆 사람 또는 옆 그룹과 함께 커피를 나눠마시면서 대화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를 보아, S2에서 혼자인 대상자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교류 행태를 자주 보여주었다. 2인으로 구성된 그룹은 앞서 공간과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와 같은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행태로서는 강아지 산책이라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2인으로 구성된 그룹은 앞서 관찰된 그룹과 같이 그룹 내에서만 교류 행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3인에서 5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그룹과 6인 이상의 대규모 그룹은 대화하면서 걷거나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는 그룹 내에서의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거나 같이 스트레칭을 하는 그룹 내에서뿐만 아니라 각 모르는 그룹이 섞여 이루어지는 교류 행태가 관찰되었다.

[표 3-4]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2 (S2 - 주중)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앉아서 전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대화하면서 걷기	대화하면서 걷기
짐정리 하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먹기	강아지 산책	음식 나눠먹기	음식 나눠먹기
	짐정리 하면서 대화하기	스트레칭	

다음 [표 3-5]는 S3인 제 4 쉼터이다. 혼자 등산한 대상자는 앞서 관찰된 두 공간 (S1, S2)와 달리, 좀 더 다양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모든 동행 관계에서 길을 물어보거나 길을 안내하는 행태가 보였지만, 주로 1인이 길을 물어보거나 길을 안내하는 행태를 더욱 많이 보여주었다. 1인은 혼자 등산했기 때문에, 주로 휴식하면서 혼자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벤치에 앉아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하는 행태도 자주 보였다. 1인으로 등산하는 사람 중 같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가벼운 대화를 하는 행태도 가끔 보였다. S2인 제 4 쉼터는 정자 및 벤치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S1과 다르게, 2인, 소규모 그룹 및 대규모 그룹은 앉아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거나 동행한 사람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다른 그룹에게 부탁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행태를 제외하면, 2인, 3인에서 5인의 소규모 그룹, 그리고 6인 이상의 대규모 그룹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교류 행태는 그룹 내 (동행 관계 내)에서의 행태들만 관찰되었다.

[표 3-5]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3 (S3 - 주중)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길 물어보고 알려주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전화 통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먹기	음식 나눠먹기
	음식 나눠먹기	길 안내하기	사진찍기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마지막으로 연주대 (S4) 공간에서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의 결과는 다음 [표 3-6]과 같다. S4인 연주대에서는 다른 공간과 다르게 그룹 내에서의 행태도 많이 관찰되었지만, 모르는 그룹끼리의 교류 행태가 다소 많이 관찰되었다.

앞서 관찰된 행태에서 음식 나눠 먹기, 사진 찍기, 앉아서 대화하기 등과 같은 행태는 그룹 안에서 그룹원들 서로 행태를 보여줬지만, S4에서는 그룹원들끼리뿐만 아니라 모르는 그룹끼리 서로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대화하거나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서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질문하는 행태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S1, S2, S3와 다르게 혼자 등산한 사람은 S4에서 다른 그룹들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옆 그룹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그룹에서는 S1 공간과 비슷하게 짐을 정리하면서 그룹 내 사람들과 대화하는 행태의 양상이 많이 보여주는 것을 보아 S4인 정상에서 하산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대화하는 행태 양상을 보인다.

[표 3-6]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4 (S4 - 주중)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서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앉아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음식 나눠 먹기
앉아서 대화하기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서서 대화하기	사진 찍기 및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음식 나눠먹기	사진 찍기 및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짐정리하면서 대화하기	

▌ 이용행태 관찰 조사 2 (주말)

2022년 9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 이용행태를 관찰하였으며, 그 중 총 5번, 2022년 9월 25일, 10월 2일, 10월 15일, 11월 13일, 11월 20일은 주말을 중심으로 관찰 조사하였다. 다음 [표 3-7]부터 [표 3-10]은 본 연구에서 지정한 4 공간 (S1, S2, S3, S4)을 중심으로 관찰된 동행 관계에 따라 보인 교류 행태를 정리하였다.

아래의 [표 3-7]를 보면, 앞서 관찰된 [표 3-3]와 비슷하게 이용행태가 관찰되었다. 1인으로 등산하는 대상자는 전화통화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둘 다 포함)를 하거나 사진을 혼자 찍는 사람도 있었으며,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도 흔히 관찰되었다. 주중과 다르게 2인으로 오는 경우는 연인이 제일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과 같이 가족 구성원 중 2인으로 이루어

진 2인 형태의 그룹이 많이 관찰되었다. 2인 그룹은 걸으면서 대화하거나 서서 대화하거나 사진을 같이 찍거나 등산을 출발하기 전 가방을 같이 정리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3인에서 5인의 소규모 그룹과 6인 이상의 대규모 그룹은 2인의 동행 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걸으면서 대화하거나 서서 대화하는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앉아서 대화하는 행태도 보여주었다. 주중의 행태 관찰 조사와 비슷하게, 6인 이상의 그룹에서는 동료들을 기다리며 앉아서 먼저 온 그룹원들과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서서 기다리면서 대화하는 경우도 보였다. 나머지 그룹원이 도착하면 악수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출발하기 전 다 같이 준비 운동 및 스트레칭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표 3-7]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5 (S1 - 주말)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전화통화	걸으면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사진찍기	서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사진찍기	물건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같이 스트레칭하기
	짐 정리하며 대화하기	악수하기 및 대화하기	동료 기다리기

아래 [표 3-8]를 보면, 대부분의 동행 관계별 교류 행태는 걸으면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등과 같은 [표 3-4]와 비슷한 교류 행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S2 (제 1 광장)에서 개인 (1인)과 개인 (1인)이 서로 모르는 관계로 만나 벤치에서 만나 커피를 나눠마시면서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가는 행태를 관찰하였다. 또한, 친구끼리 방문한 2인 그룹이 먼저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는데, 혼자 오신 분이 같이 벤치를 사용하여도 되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같이 공간을 나누었으며, 가져온 음식과 커피를 함께 나눠 마시는 교류 행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그룹의 그룹원과 또 다른 그룹의 그룹원이 우연히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그룹을 소개해주며 그룹끼리 인사하고 대화하는 교류 행태도 관찰하였다.

[표 3-8]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6 (S2 - 주말)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앉아서 전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대화하면서 걷기	대화하면서 걷기
짐정리 하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먹기	강아지 산책	음식 나눠먹기	음식 나눠먹기
	짐정리 하면서 대화하기	스트레칭	
-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서 대화하기 - 2인 친구와 개인 함께 벤치를 나눠서 앉은 뒤, 함께 커피 나눠 마시기 - 다른 집단과 다른 집단이 우연히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기			

S2 (제 1 광장)을 에서 S3 (제 4 쉼터)로 가는 등산로에서도 다양한 행태가 이루어졌다. 서로 대화하는 행태 물론 많이 관찰되며, 모르는 사람끼리 길을 물어보고 길을 알려주는 행태도 관찰되었다.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손을 잡아 주어 도와주거나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교류 행태도 볼 수 있었다.

“지나가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위험한 등산길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 준 일도 있었으며, 연주대로 올라가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라고 어린 친구들에게 격려의 인사도 한 적이 있다.“

- 50대 응답자 A -

“친구끼리 등산할 때는 우정이 더욱 돈돈해지는 거 같다. 카페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등산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힘든 일이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힘듦을 나누는 장소인 거 같다.”

- 30대 응답자 C -

이와 같이, 지정한 곳뿐만 아니라 등산로에서도 아는 사람(함께 간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등산로에서 만난 사람)과의 교류 행태가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S3 (제 4 쉼터)에서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의 결과는 다음 [표 3-9]와 같다. 혼자 온 사람은 길을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길을 물었을 때, 길을 알려주는 교류 행태를 보였다. [표 3-5]와 같이, 2인, 소규모 그룹, 그리고 대규모 그룹에서 정자나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며 음식을 먹고, 서서 대화하거나 서서 대화하면서 풍경 사진을 찍거나 그룹의 사진을 찍는 비슷한 교류 행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S3에서 주중과 다르게 주말에서 관찰된 이용행태는 대부분 그룹 내 즉, 아는 사람끼리에서의 교류 행태가 많이 보였다.

[표 3-9]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7 (S3 - 주말)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길 물어보고 알려주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음식 나눠 먹기
	음식 나눠 먹기		사진찍기

S4인 연주대에서의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는 다음 [표3-10]과 같다. 다음 결과는 주중의 결과인 [표 3-6]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혼자 온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행태를 볼 수 있었고, 음식을 혼자 먹다가 옆 그룹이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먹는 행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2인이 온 그룹은 둘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하는 행태를 볼 수 있다. 또한, 2인 형태의 그룹이 다른 그룹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행태가 관찰되었고, 소규모 그룹 및 대규모 그룹은 대화를 통해 음식을 같이 먹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이 공간에서는 다른 공간과 다르게, 어느 그룹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한 음악의 휴식을 취하고 노래 신청 및 음악 공유를 함께 하는 교류 행태도 관찰되었다.

[표 3-10]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관찰 조사 8 (S4 - 주말)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서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서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앉아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음식 나눠 먹기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서서 대화하기	사진 찍기 및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음식 나눠 먹기	사진 찍기 및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같이 듣기			

3. 심층 인터뷰 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인 관악산 등산로 (관악산 공원 - 연주대)를 이용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22년 9월 28일, 10월 2일, 11월 20일 3일 동안 진행하였다. 관악산을 등산하는 사람들 중 등산하는 사람과 등산 중 휴식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이용행태 관찰 조사하였던 일시에 진행하였으며, 대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3일 동안 심층 인터뷰를 통해, 총 14명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심층 인터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응답자의 일반 정보,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으로 질문하였다. 아래 [표3-11]와 같이, 본 심층 인터뷰의 질문은 인터뷰 응답자의 연령대, 관악산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사람과의 관계, 및 응답자의 일반 정보, 그리고 응답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교류 활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따른 응답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교류 활동'의 개념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경험하고 질문에 응대했을 때, 도시 및 산에서 일어나는 교류 행태와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도시에서의 교류 행태와 산에서의 교류 행태의 다른 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응답자가 관악산을 방문하였을 때,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하기 전에,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개념과 키워드를 설명한 뒤, 서로 다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교류 행태가 이루어졌으며, 누구와 함께 그 행태를 하였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와 다르게 산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교류 행태가 일어남을 앞서 이용행태 관찰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동행한 사람과의 교류 행태 종류와 모르는 사람과의 교류 행태 종류를 함께 질문하였다.

[표 3-11] 심층 인터뷰 응답자 개요

	일반 정보 (응답자의 정보)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응답자	연령대	동행 관계	정의/ 개념	차이점	경험
A	50대	동호회	만남	고통은 분담	손잡아 주기
B	50대	동호회	만나서 대화하기	길 안내 및 음식 나눠주기	음식 나눠주기
C	30대	친구 (3인)	친목 활동 / 취미 생활 공유	같이 운동 하기 (등산)	간식 챙겨주기 / 등산하면서 대화
D	30대	친구 (2인)	같이 밥 먹기 / 좋아하는 거 교류	자연을 같이 보는 것 / 사진찍기	모르는 사람과 코다리, 사과 나눠 먹기
E	30대	친구 (2인)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힘든거 나누고 깊게 얘기하기	서로 길 알려주고 가면서 대화하기
F	50대	친구 및 동호회	맛있는 거 나눠 먹기 / 같이 운동하고 술 마시기	말 건네주기 / 인사 해주기	등산하면서 대화 화기 / 위험한 곳만 손잡아 주기
G	10대	가족 (2인)	물건 주고받기 / 얘기하기 / 서로 안부 물어보기	힘든 것을 나눌 수 있음 / 음식을 나눠주기	길을 모를 때 길 알려주고,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하기

H	30대	친구 (3인)	같이 땀흘리면서 운동하기 /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아는 사람끼리 같이 대화하면서 등산하기 / 음식 나눠 먹기
I	20대	연인 (2인)	대면을 통해 직접적인 활동	같이 등산하기 / 소풍가기	등산하면서 대화 / 길 물어보기와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J	40대	혼자	만나서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물이나 커피를 나눠 마셨음
K	50대	혼자	같이 밥 먹기 / 같이 등산하기	경계심이 조금 사라지는 것	어린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 모르는 사람이랑 간단하게 대화하기
L	30대	연인 (2인)	취미 생활 공유하기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깊은 얘기하기	미끄러운 곳에서 손을 잡아 주기 / 다친 사람을 도와준 적 있음
M	40대	가족 (2인)	대화하기	음식 나눠 먹기	모르는 사람이랑 벤치에 같이 앉음 / 커피를 나눠 마심
N	20대	친구 (4인)	같이 운동하기 / 친목 활동하기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음	휴지를 주면서 가벼운 대화하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개념을 “만남, 친목 활동, 같이 밥 먹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등”과 같이 함께 하는 활동을 교류 활동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회적 교류 활동... 만나는 거 아닐까? 만나서 하는게 다 교류 활동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동호회 친구들과 산을 타고 싶어서 함께 왔는데. 이 친구들과 동호회에서 만났지만 오래된 친구들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산도 같이 가고 산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가끔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는다. 이런 것도 사회적 교류 활동에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
- 50대 응답자 A -

“취미 생활 공유하려고 동호회나 동아리 가입해서 같이 취미 생활 즐기는 게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들거나 배우는 것이 좋아서 지금 모임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지내고 있어요.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교류도 잘 되는거 같아 좋아요. 아, 그리고 요새 2030대는 카톡에 오픈채팅방에 산악 모임 카톡 단톡방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같이 산행을 즐기거나 야간 산행도 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 30대 응답자 D -

“저는 이 친구와 다르게 어느 공간이든 그 공간에서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친구와 함께 등산하는 것도 관악산이라는 곳에서 등산하고 있으니 이것도 교류 활동이 아닐까요?”
- 30대 응답자 E -

“저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서로 근황 얘기하는 게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로 생각해서요. 아, 그리고 물건 주고 받는 것도 교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친구들이나 이웃들끼리 내가 쓰던 것 중 제게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친구들 물건 중 원하는 물건이랑 바꾸기도 해요. 그것도 교류라고 생각해요.”
- 10대 응답자 G -

도시에서와 다르게 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교류 활동은 고통을 분담하거나 음식을 나눠서 함께 먹거나 자연을 같이 바라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쉽게 건네는 행태를 응답자들은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도시에서는 겁이 나고 피하고 싶은데, 오늘 나처럼 혼자 등산한 사람들이나 나도 누군가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 함께 등산하니까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덜 무섭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 50대 응답자 K -

“저는 집에서 아빠랑 같이 시간을 자주 보내는 편인데도, 집에서는 아빠한테 학교에서 힘들었던 것이나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 얘기를 잘 못 꺼내는 거 같아요. 근데 가끔 아빠랑 주말에 등산하면서 집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다 하는거 같아요. 친구들 관계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같은 거요. 등산하면서 가끔 아빠한테 고민 상담도 하고요. 등산하고 아빠랑 더 친해진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아빠랑 등산하다 보면 휴식할 때나 정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옆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옆 사람이 힘든데 물이 없으면 나눠주기도 해요. 저는 아파트 살아서 이웃과 이런 게 없었는데 등산하면서 음식 나눠 먹는 걸 하는거 같아요.”

- 10대 응답자 G -

“여자친구와 평소에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제 속 마음을 표현하거나 힘든일을 얘기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랑 등산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여자친구한테 다 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하거나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거 같아요. 카페나 데이트 할때는 거의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주는데, 등산하면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주면서 제 얘기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처음 등산 이후부터 자주 여자친구와 데이트로 등산을 함께 하면서 운동도 하고 서로 속 마음을 얘기하면서 더 돈독해지거 같아요.”

- 30대 응답자 L -

“이 친구랑 학창시절부터 친구였는데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카페 가서 수다를 엄청 떨어도 속 깊은 얘기나 힘든 얘기는 정작 못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등산하자고 제안해서 같이 등산을 하면서 근황 얘기도 더 하게 되고, 최근에 힘들었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고민거리도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몰랐던 부분도 더 알게 되고 더 친해진 거 같아서 좋아요.”

- 30대 응답자 E -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개념이나 도시에서와 다른 산에서의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을 관악산 등산 시, 직접 경험하였는지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직접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 교류 활동 중에는 같이 등산 사람과 경험한 교류 행태도 있었으며, 위험한 곳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음식 나눠 먹기와 같은 교류 행태는 관악산 등산 시,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한 교류 행태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친구와 등산을 했지만, 쉼터나 힘들 때 바위에 앉아서 쉴 때 친구랑도 가져온 음식을 먹지만 옆에 분들과 나눠 먹은 경험이 있어요. 아줌마들끼리 오신 거 같은데, 그분들이 먼저 코다리를 주시길래 저희도 가져온 사과와 같은 과일들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오고가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꼭 짧은 간식 파티를 한 거 같았어요.”

- 30대 응답자 D -

“나는 주로 산을 혼자 다니는데, 처음에는 혼자 묵묵하게 등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서 나도 인사를 했는데, 그 때 기분이 좋더라구. 그래서 다음부터 등산하면서 인사를 먼저 해요. 특히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힘들어하면 파이팅이라고 응원도 해줘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친구들은 대화도 이끌어가고 하더라고. 혼자 등산하면서 그런 가벼운 인사나 대화를 하는게 좋더라구.”

- 50대 응답자 K -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모르는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예요. 근데 저번에 친구들과 관악산 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음식을 쏟아서 먼저 휴지를 건네주면서 도와주면서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도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도와주고 말 건네서 저도 스스로 놀라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 20대 응답자 N -

“항상 딸이랑 함께 등산해요. 딸이랑 등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딸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집에서 대화도 적었는데, 코로나 때 등산을 같이 다니면서 딸이랑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딸이랑 친하게 잘 다녀서 좋아요. 딸이랑 얘기하면서 등산해서 그런지 저희는 천천히 등산하는게 좋아요. 그래서 중간에 바위나 벤치에서 쉬면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래요. 가끔 벤치나 바위를 같이 공유해서 앉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 분들이 앉으시면 항상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얘기를 하는거 같아요. 또, 가끔 혼자 오신 분들은 같이 커피를 나눠 마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간식이나 컵을 여유분으로 들고 다녀요.”

- 40대 응답자 M -

2절.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빈도 분석[1)]

1.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빈도 분석

도시 근교 산인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기준인 동행 관계마다 교류 행태의 빈도를 구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진행된 관악산에 특정 지점 (S1, S2, S3, S4)에서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각 공간에서 동행 관계마다 보이는 교류 행태의 차이가 존재한다. 각 특정 공간에서의 동행 관계에 따른 교류 행태의 빈도를 분석하여 동행 관계마다 보이는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이용행태 빈도 분석은 앞서 진행된 관찰 조사 시, 각 공간에서 10분마다 관찰하였으며, 공간마다 관찰된 교류 행태를 중심으로 각 교류 행태의 항목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에 따라 빈도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 이용행태 관찰 조사 - 빈도 분석 (주중)

주중의 동행 관계마다 보이는 교류 행태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12]와 같다.

공간 S1 인 관악산 공원에서는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집단의 빈도가 혼자 또는 2인의 관계보다는 대체로 다소 많으며, 모든 동행 관계에서 '걸으면서 대화하기'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산 등산로의 시작점이라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스트레칭을 하거나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는 행태로 볼 수 있다. 동료나 친구들을 기다리기 위해 바위에 앉아서 먼저 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교류 행태는 6인 이상인 대규모 그룹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서서 대화하기' 또한 대규모 그룹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출발하기 전에 물건 및 짐을 정리하는 행태도 다소 볼 수 있다.

---

1) 3장 2절에서의 그림 자료 ([그림 3-1]부터 [그림 3-14])는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며, 다음과 같다.

S2인 관악산 호수 공원 일대인 제 1 광장에서는 걸으면서 대화하기가 모든 관계에서 다소 많은 양상을 나타났으며, 벤치라는 인프라가 있어 S1보다는 S2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행태도 보이며, 앉아서 대화하기' 행태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S3인 제 4쉼터에서도 벤치나 정자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앉아서 대화하기' 의 행태가 모든 관계에서 보이며, '음식 나눠 먹기' 의 행태도 1인, 소규모 그룹, 그리고 대규모 그룹에서 보인다. 또한, 등산로 중간에 있는 쉼터라 '걸으면서 대화하기' 의 행태도 많이 보인다.

본 연구의 마지막 지점인 연주대, S4에서는 다른 공간에 비해 각 교류 행태마다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관계에서 '앉아서 대화하기' 그리고 '음식 나눠 먹기' 교류 행태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서서 대화하기', '사진찍기' 그리고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행태도 많이 볼 수 있다. '앉아서 대화하기' 의 교류 행태 빈도는 3-5인인 소규모 그룹에서 가장 많이 보여졌으며, '사진 찍기' 의 행태는 혼자라는 관계에서 많이 보였다. '사진 찍기' 와 같은 교류 행태는 혼자서 등산한 사람들은 다른 그룹이나 다른 혼자 온 사람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찍는 교류 행태 양상을 많이 보였다.

[표 3-12]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빈도 분석 - 주중

교류 행태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공간
걸으면서 대화하기	-	6	9	7	S1
서서 대화하기	-	3	2	4	
물건 및 짐 정리하기	-	2	3	3	
앉아서 대화하기	-	-	1	5	
사진 찍기	-	-	-	-	
스트레칭 하기	-	3	4	2	
앉아서 대화하기	-	6	3	2	S2
걸으면서 대화하기	-	11	8	5	
강아지 산책	-	3	-	-	
음식 나눠먹기	4	4	5	3	
전화통화	1	-	-	-	
같이 스트레칭하기	-	-	3	4	
앉아서 대화하기	2	3	2	1	S3
걸으면서 대화하기	-	6	4	5	
서서 대화하기	-	-	1	-	
음식 나눠 먹기	3	-	2	1	
사진 찍기	-	-	-	-	
길 물어보고 알려주기	1	1	-	-	
앉아서 대화하기	3	6	9	5	S4
서서 대화하기	-	2	4	3	
음식 나눠 먹기	3	6	4	5	
사진 찍기	6	4	2	-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	3	2	5	

▌ 이용행태 관찰 조사 -빈도 분석 2 (주말)

주말의 동행 관계마다 보이는 교류 행태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13]와 같다.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며, 다양한 관계들이 방문함으로써 다음 결과는 주중의 빈도 결과보다 주말의 빈도 결과값이 더 많이 보인다.

S1에서는 주중과 비교하면 '걸으면서 대화하기' 교류 행태의 빈도 결과값이 높으며, 2인이라는 관계에서는 주중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주중과 다르게 '전화통화'라는 교류 행태도 관찰되었으며, 주로 1인에서 관찰되었다. '사진 찍기'의 교류 행태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관찰되었지만 다른 행태에 비해 적게 관찰되었다.

S2에서는 쉼터라는 공간의 특성 상 '앉아서 대화하기' 및 '걸으면서 대화하기'의 교류 행태가 많이 보여졌으며, 동행 관계 중 2인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교류 행태는 주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같이 스트레칭하는 행태 또한 3-5인인 소규모 그룹과 6인 이상의 대규모 그룹에서만 행태를 보였다.

S3에서는 주중과 비슷한 결과 값을 보이며, 주말에는 길을 물어보고 길을 알려주는 행태가 다소 보였고 '앉아서 대화하기'와 '걸으면서 대화하기'의 교류 행태는 주중보다 조금 많이 보였으며, 모든 동행 관계에서 보여졌다.

연주대인 S4에서는 주중보다 교류 행태의 빈도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2인의 관계와 소규모 그룹의 '앉아서 대화하기'와 '서서 대화하기', '사진 찍기' 그리고 '음식 나눠 먹기'의 교류 행태 양상이 많이 보여졌다.

또한, 혼자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는 행태를 제외하면, S4에서는 다른 공간보다 모든 동행 관계들의 교류 행태를 볼 수 있었다.

[표 3-13]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빈도 분석 - 주말

교류 행태	1인	2인	3인 - 5인	6인 이상	공간
걸으면서 대화하기	-	11	8	8	S1
전화통화	1	-	-	-	
서서 대화하기	-	2	1	2	
물건 및 짐 정리하기	-	1	1	2	
앉아서 대화하기	-	-	1	2	
사진 찍기	1	1	1		
스트레칭 하기	-	-	2	3	
앉아서 대화하기	3	6	3	2	S2
걸으면서 대화하기	-	21	8	4	
길 물어보기	-	-	-	-	
서서 대화하기	-	-	-	-	
음식 나눠먹기	4	4	3	-	
전화통화	2	-	-	-	
같이 스트레칭하기	-	-	4	5	
앉아서 대화하기	-	3	5	2	S3
걸으면서 대화하기	-	7	4	4	
서서 대화하기	-	-	-	5	
음식 나눠먹기	2	5	2	-	
사진 찍기	-	-	2	1	
길 물어보고 알려주기	4	-	-	5	
앉아서 대화하기	4	12	16	8	S4
서서 대화하기	-	9	6	8	
음식 나눠먹기	2	8	7	5	
사진 찍기	6	9	6	3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	6	7	5	

2. 공간별 이용행태 빈도 분석

도시 근교 산이라는 특정한 환경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본 연구의 특정 지점인 S1 (관악산 공원), S2 (제 1 광장), S3 (제 4 쉼터) 그리고 S4 (연주대)에서 교류 행태를 관찰하고 공간마다 교류 행태 빈도를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관찰된 주중과 주말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 결과는 크게 동적 행태와 정적 행태로 나누며 더 구체적으로 공간마다 '대화', '운동' 그리고 '생활'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3-14]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각 공간의 특징에 따라 보이는 공간별 교류 행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공간마다 관찰된 교류 행태 빈도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마다 동행 관계에 따라 교류 행태의 빈도를 분석하고,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행태별로의 빈도 분석을 하여 동행 관계를 기준으로 공간별 및 교류 행태별의 빈도를 파악하여 공간별 이용행태 특성을 알 수 있다. 공간별 교류 행태 빈도 분석 결과는 주중 빈도 분석 결과와 주말 빈도 분석 결과로 다음 [표 3-15]와 [표 3-16]과 같다.

[표 3-14] 대상지 공간별 교류 행태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S1(관악산 공원)</th><th>S2(제 1광장)</th><th>S3(제 4쉼터)</th><th>S4(연주대)</th></tr>
<tr><td rowspan="5">동적행태</td><td rowspan="2">대화</td><td>걸으면서 대화하기</td><td>걸으면서 대화하기</td><td rowspan="2">걸으면서 대화하기</td><td rowspan="2">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td></tr>
<tr><td>짐 정리 하면서 대화하기</td><td>짐 정리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기</td></tr>
<tr><td>운동</td><td>스트레칭 하기</td><td>동행한 사람과 스트레칭 하기</td><td></td><td></td></tr>
<tr><td rowspan="2">생활</td><td>짐 정리 하기</td><td rowspan="2">강아지 산책</td><td>길 물어보기</td><td rowspan="2"></td></tr>
<tr><td>만나서 악수하기</td><td>길 안내하기</td></tr>
<tr><td rowspan="6">정적행태</td><td rowspan="2">대화</td><td>앉아서 대화하기</td><td>앉아서 대화하기</td><td>앉아서 대화하기</td><td>앉아서 대화하기</td></tr>
<tr><td>서서 대화하기</td><td>앉아서 전화하기</td><td>서서 대화하기</td><td>서서 대화하기</td></tr>
<tr><td rowspan="4">생활</td><td>사진 찍기</td><td rowspan="4">앉아서 음식 나눠 먹기</td><td>앉아서 음식 나눠 먹기</td><td>앉아서 음식 나눠 먹기</td></tr>
<tr><td>전화 통화하기</td><td>사진 찍기</td><td>사진 찍기</td></tr>
<tr><td>함께 온 사람과 사진 찍기</td><td>사진 찍어달라고 하기</td><td>사진 찍어달라고 하기</td></tr>
<tr><td>앉아서 동료 기다리기</td><td>앉아서 전화 통화하기</td><td>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같이 듣기</td></tr>
</table>

S1인 관악산 공원에서는 동적인 행태와 정적인 행태 둘 다 다양하게 보여준다. 동적인 행태를 보면, 아래 [그림 3-1]과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기, 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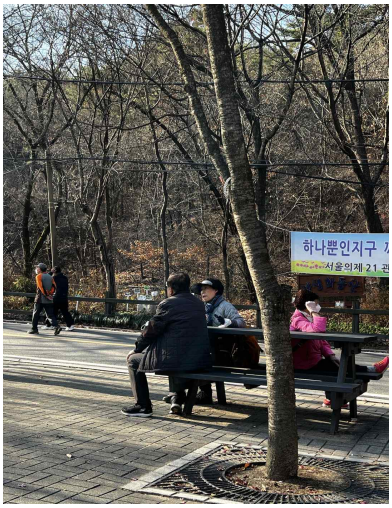
하면서 대화하기인 ‘대화’인 행태와 혼자 또는 같이 스트레칭을 하는 행태인 운동, 가져온 짐을 정리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는 행태를 볼 수 있다. 정적인 행태로는 앉아서 대화하거나 서서 대화하고 있는 행태를 자주 볼 수 있으며, 가끔 관악산 공원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앉아서 동료를 기다리는 행태도 볼 수 있었다. 이 행태로 보아, S1인 관악산 공원은 등산로의 입구이자 출발점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래 [그림3-2]와 같이 함께 온 사람들과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아서 동료를 기다리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앉아서 대화하는 행태를 자주 볼 수 있으며, 다른 공간들과 달리 인사하고 만나서 악수하는 행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3-1] S1 - 대화하면서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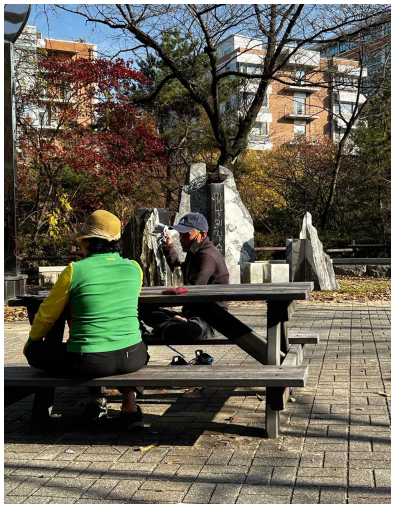
[그림 3-2] S1 - 스트레칭하기

S2인 제 1광장은 관악산 호수 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은 많은 벤치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등산하는 사람들과 하산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대화를 하는 행태를 자주 보여준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행한 사람과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림 3-5]와 같이 짐 정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행태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며, 제 1광장을 지나면서 대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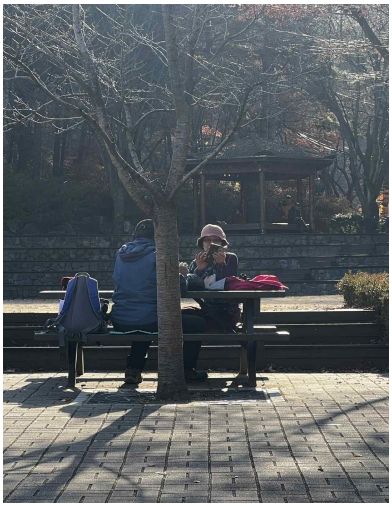
거나 강아지 산책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광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보아, [그림 3-4]와 [그림 3-6]과 같이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앉아 커피와 차를 나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행태가 다른 공간에 비해 많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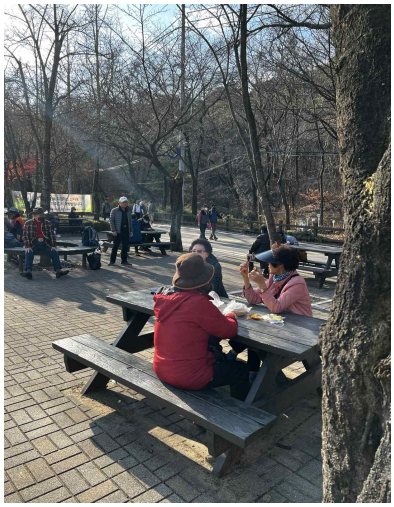
[그림 3-3] S2 - 대화하기 및 전화 통화



[그림 3-4] S2 - 앉아서 대화하기



[그림 3-5] S2 - 앉아서 대화하기 및 짐 정리



[그림 3-6] S2 - 앉아서 대화 및 음식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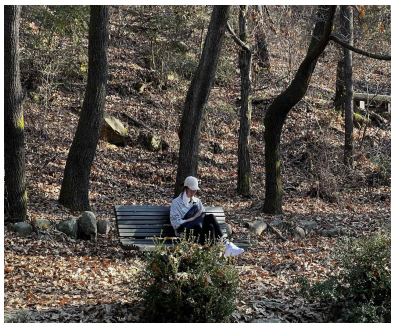
다음 [그림 3-7]과 [그림 3-8]은 본 연구에서 지정한 공간 (S1, S2, S3, S4)이 아닌, 본 연구의 대상지 중 등산로이다. 등산로에서도 다른 지정된 공간과 비슷하게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거나 평상에 앉아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는 행태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다소 보였다.

[그림 3-7] 앉아서 대화하기

[그림 3-8] 앉아서 대화 및 음식 먹기

[그림 3-8]부터 [그림 3-12]까지 보면, S3에서는 쉼터라는 공간의 특성이 있어 동적인 행태도 보였지만, 동적인 행태보다는 정적인 행태를 더 많이 보였다. 동적인 행태는 걸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길을 물어보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행태를 다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적인 행태에서는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거나 서서 대화하는 그룹도 보였으며, 벤치나 정자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하는 행태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연 사진을 찍거나 함께 온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그룹도 많았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교류 행태도 보였다. 그룹으로 등산한 사람들의 행태는 함께 사진을 찍고, 대화하는 교류 행태를 보였지만, 혼자 온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서 영상통화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하는 행태를 보여줬다.

[그림 3-9] S3 - 앉아서 대화하기



[그림 3-10] S3 - 앉아서 통화하기

[그림 3-11] S3 - 앉아서 전화 통화

[그림 3-12] S3 - 앉아서 대화하며 사진 찍기

S4인 연주대(절 및 정상 포함)에도 S3와 같이 동적인 행태보다 정적인 행태를 좀 더 많이 보여준다. 동적인 행태로서는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만 보이지만, 앉아서 대화하고,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고, 사진을 찍거나 서서 대화하는 다양한 정적인 행태를 볼 수 있다. 또한, S4에서는 다른 공간과 다르게 블루투스 스피커나 핸드폰을 사용하여 그룹끼리 앉아서 음악을 같이 듣고 노래를 부르는 행태도 볼 수 있었다.

[그림 3-13] S4 - 앉아서 음식 먹기

[그림 3-14] S4 - 음식 먹기 및 사진 찍기 등

▌ 교류 행태 빈도 분석 (주중)

본 연구에서 특정 지정한 공간 S1부터 S4까지에서 동행 관계마다 교류 행태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15]와 [표 3-16]과 같다.

S1인 관악산 공원에서는 3인-5인의 소규모 그룹이 35.2%로 6인 이상의 대규모 그룹이 38.9%로 다른 동행 관계보다 높은 교류 행태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행태별로 보면, '걸으면서 대화하기'가 40.7%로 S1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교류 행태이며, '서서 대화하기', '물건 및 짐 정리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그리고 '스트레칭하기' 교류 행태는 '걸으면서 대화하기'보다는 낮은 빈도를 보이지만 10%이상으로 보아 교류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S2에서는 2인이 38.7%로 3인-5인인 소규모 그룹이 30.6%로 가장 많은 교류 행태 빈도값을 보여준다. 혼자 온 사람도 S1보다는 다소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광장이라는 공간 특성 상 '걸으면서 대화하기'와 '음식 나눠 먹기'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앉아서 대화하기' 또한 그 다음으로 높았다.

S3에서는 S2보다는 비교적 관계별 교류 행태 빈도가 낮지만 다양한 관계들에서의 교류 행태를 볼 수 있다. 쉼터라는 공간 특성상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휴식 시간을 갖는 경우와 같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 '걸으면서 대화하

기’ 교류 행태가 46.9%로 가장 높았으며, ‘앉아서 대화하기’도 25%로 두 번째로 높은 교류 행태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마지막 지점인 연주대 S4에서는 2인과 소규모 그룹이 29.2%로 같은 교류 행태 빈도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규모 그룹도 25%로 다른 공간과 달리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S4에서는 ‘앉아서 대화하기’가 31.9%로, ‘서서 대화하기’가 12.5%로, ‘음식 나눠 먹기’로 25%로, ‘사진 찍기’가 16.7%로.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가 13.9%로 모든 행태가 다양한 빈도 값을 보였다. 주중 사회적 교류 활동은 2인이 31.4%로 가장 높은 빈도 값을 보였으며, 소규모 그룹이 30.9%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혼자 온 사람의 사회적 교류는 다른 관계와 다르게 10.5%로 비교적 적은 빈도 값을 보였다.

[표 3-15] 교류 행태 빈도 분석 (S1-S4) - 주중

행태	1인	2인	3인-5인	6인 이상	행태별	공간
걸으면서 대화하기	-	6	9	7	40.7%	S1
서서 대화하기	-	3	2	4	16.7%	
물건 및 짐 정리하기	-	2	3	3	14.8%	
앉아서 대화하기	-	-	1	5	11.1%	
사진 찍기	-	-	-	-	0.0%	
스트레칭 하기	-	3	4	2	16.7%	
S1 (%)	0%	25.9%	35.2%	38.9%		
앉아서 대화하기	-	6	3	2	17.7%	S2
걸으면서 대화하기	-	11	8	5	38.7%	
강아지 산책	-	3	-	-	4.8%	
음식 나눠먹기	4	4	5	3	25.8%	
전화통화	1	-	-	-	1.6%	
같이 스트레칭하기	-	-	3	4	11.3%	
S2 (%)	8.1%	38.7%	30.6%	22.6%		
앉아서 대화하기	2	3	2	1	25.0%	S3
걸으면서 대화하기	-	6	4	5	46.9%	
서서 대화하기	-	-	1	-	3.1%	
음식 나눠먹기	3	-	2	1	18.8%	
사진 찍기	-	-	-	-	0.0%	
길 물어보고 알려주기	1	1	-	-	6.3%	
S3 (%)	18.8%	31.3%	28.1%	21.9%		
앉아서 대화하기	3	6	9	5	31.9%	S4
서서 대화하기	-	2	4	3	12.5%	
음식 나눠먹기	3	6	4	5	25.0%	
사진 찍기	6	4	2	-	16.7%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	-	3	2	5	13.9%	
S4 (%)	16.7%	29.2%	29.2%	25.0%		
주중 사회적 교류 (%)	10.5%	31.4%	30.9%	27.3%		

▌ 교류 행태 빈도 분석 (주말)

다음 [표3-15]는 주말에서 보여진 공간별 교류 행태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주말과 주중의 사회적 교류 행태는 비슷하게 이루어져 보인다. 2인으로 등산한 사람들의 교류 행태가 주중보다 주말에 교류 행태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인 또는 가족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이 주말에 여가로 등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자, 소규모 그룹과 대규모 그룹은 주말과 주중의 차이가 0.7%, 0.5%, 1.8%로 다소 적게 나타난다.

S1에서는 대규모 그룹이 35.4%로, 2인이 31.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등산로 입구라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걸으면서 대화하기' 의 교류 행태가 56.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나머지 교류 행태들은 '걸으면서 대화하기' 보다 비교적 적은 빈도를 보여주지만,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S2에서는 혼자 등산한 사람과 2인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교류 행태 빈도가 주중보다 주말에서 4.9%, 5.2% 보다 높은 양상을 보인다. S2에서도 '걸으면서 대화하기' 가 47.8%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광장에 벤치가 있어 '앉아서 대화하기' 라는 교류 행태도 다소 많이 보인다.

쉼터인 S3에서는 주중보다 주말에 동행한 사람끼리의 교류 행태가 낮은 빈도를 보이며, 각 교류 행태의 빈도들보다 낮다. 하지만, 주중보다는 주말에 모든 교류 행태에서 빈도 값을 보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교류 행태를 볼 수 있다고 본다.

S4에서는 등산로의 마지막 지점이라 '앉아서 대화하기' 교류 행태가 가장 31.5%로 가장 높게 보였으며, '사진 찍기' 로 18.9%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서서 대화하기' 교류 행태는 주중보다 5.6%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3-15] 교류 행태 빈도 분석 (S1-S4) - 주말

행태	1인	2인	3인-5인	6인 이상	행태별	공간
걸으면서 대화하기	-	11	8	8	56.3%	S1
전화 통화	1	-	-	-	2.1%	
서서 대화하기	-	2	1	2	10.4%	
물건 및 짐 정리하기	-	1	1	2	8.3%	
앉아서 대화하기	-	-	1	2	6.3%	
사진 찍기	1	1	1	-	6.3%	
같이 스트레칭하기	-	-	2	3	10.4%	
S1 (%)	4.2%	31.3%	29.2%	35.4%		
앉아서 대화하기	3	6	3	2	20.3%	S2
걸으면서 대화하기	-	21	8	4	47.8%	
길 물어보기	-	-	-	-	0%	
서서 대화하기	-	-	-	-	0%	
음식 나눠 먹기	4	4	3	-	15.9%	
전화통화	2	-	-	-	2.9%	
같이 스트레칭하기	-	-	4	5	13.0%	
S2 (%)	13.0%	44.9%	26.1%	15.9%		
앉아서 대화하기	-	3	5	2	19.6%	S3
걸으면서 대화하기	-	7	4	4	29.4%	
서서 대화하기	-	-	-	5	9.8%	
음식 나눠먹기	2	5	2	-	17.6%	
사진 찍기	-	-	2	1	5.9%	
길 물어보고 알려주기	4	-	-	5	17.6%	
S3 (%)	11.8%	29.4%	25.5%	33.3%		
앉아서 대화하기	4	12	16	8	31.5%	S4
서서 대화하기	-	9	6	8	18.1%	
음식 나눠먹기	2	8	7	5	17.3%	
사진 찍기	6	9	6	3	18.9%	
짐 정리하면서 대화	-	6	7	5	14.2%	
S4 (%)	9.4%	34.7%	33.1%	22.8%		
주말 사회적 교류 (%)	9.8%	35.6%	29.5%	25.1%		

제 4장 사회적 교류 활동으로서 관악산

1절. 이용행태를 통한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1. 설문개요

본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관악산에서 관악산 공원에서 출발하여 관악산 호수 공원을 지나 제 4 쉼터 및 관악산 제 4 아영장을 지나 연주대까지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 조사와 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설문 조사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예비 설문 조사 진행을 통해 사회적 교류 활동 경험에 대한 질문 항목에 대한 오류를 찾아 수정하고 보완하여 2022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11월 26일까지 7일 동안 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설문 조사는 관악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였으며, 본 설문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진행 과정은 관악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오라인 진행 과정은 산악회에서 관악산을 등산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총 188부를 회수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질문하였다. 첫 번째, 응답자의 일반 정보, 두 번째, 사회적 교류에 대한 인식, 세 번째,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아래 [표 4-1]와 같이, 설문 조사 개요에 따른 응답자의 일반 정보는 나이, 성별, 관악산을 방문 했을 시, 동행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인 경험은 앞서 진행한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에서 나온 행태들을 키워드로 정리하여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은 1인, 2인, 3-5인, 그리고 6인 이상으로 기준을 두어 키워드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5점 (1점: 경험 없음 / 전혀 안 함, 2점: 가끔 함, 3점: 보통, 4점: 자주 함, 5점: 항상 함)으로 측정하여 진행하였다.

[표 4-1] 설문 조사 질문 개요

<table>
<tr><th>분류</th><th colspan="2">세부내용</th><th>답변 항목</th></tr>
<tr><td rowspan="3">일반 정보</td><td colspan="2">나이</td><td>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td></tr>
<tr><td colspan="2">성별</td><td>남/여</td></tr>
<tr><td colspan="2">관악산 방문 시, 동행 관계</td><td>혼자 (1인)
연인,친구 (2인)
소규모 집단 (3-5인)
대규모 집단 (6인 이상)</td></tr>
<tr><td rowspan="7">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td><td colspan="2">만남/만나서 대화하기</td><td rowspan="5">1 (비동의)
2 (조금 비동의)
3 (보통)
4 (조금 동의)
5 (매우 동의)</td></tr>
<tr><td colspan="2">같이 밥 먹기</td></tr>
<tr><td colspan="2">같이 술 마시기</td></tr>
<tr><td colspan="2">친목 활동 / 취미 생활 공유</td></tr>
<tr><td colspan="2">서로 안부 묻기</td></tr>
<tr><td colspan="2">보기 질문에 없는
다른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td><td>주관식 답변</td></tr>
<tr><td colspan="2">동행 관계에 따라,
교류 활동이 달라지는가?</td><td>1 (비동의)
2 (조금 비동의)
3 (보통)
4 (조금 동의)
5 (매우 동의)</td></tr>
<tr><td rowspan="4">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td><td rowspan="4">동행 관계별로 같은 질문 함

1인
(혼자)

(2인)
연인,친구</td><td>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 주고 먹기</td><td rowspan="4">1 (경험 없음 / 전혀 안 함)
2 (거의 안 함)
3 (가끔 함 / 보통)
4 (자주 함)
5 (항상 함)</td></tr>
<tr><td>동행한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1인은 질문 해당 없음)</td></tr>
<tr><td>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td></tr>
<tr><td>동행한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td></tr>
</table>

	3-5인 (소규모 그룹) 6인 이상 (대규모 그룹)	모르는 사람에게 서로 길 안내해주기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기	
		동행한 사람과 사진 찍기	
		위험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 주기	
		동행한 사람 손 잡아 주기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동행한 사람과 함께 스트레칭 하기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동행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전화 통화	
		짐 정리 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짐 정리 하면서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기	
		음악 같이 듣기 (블루투스 스피커로 같이 듣기)	
		완주 인증하기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	
	관악산 등산 시, 좋아하는 장소 및 그 곳에서 체류 시간		주관식
	질문 항목에서 없는 다른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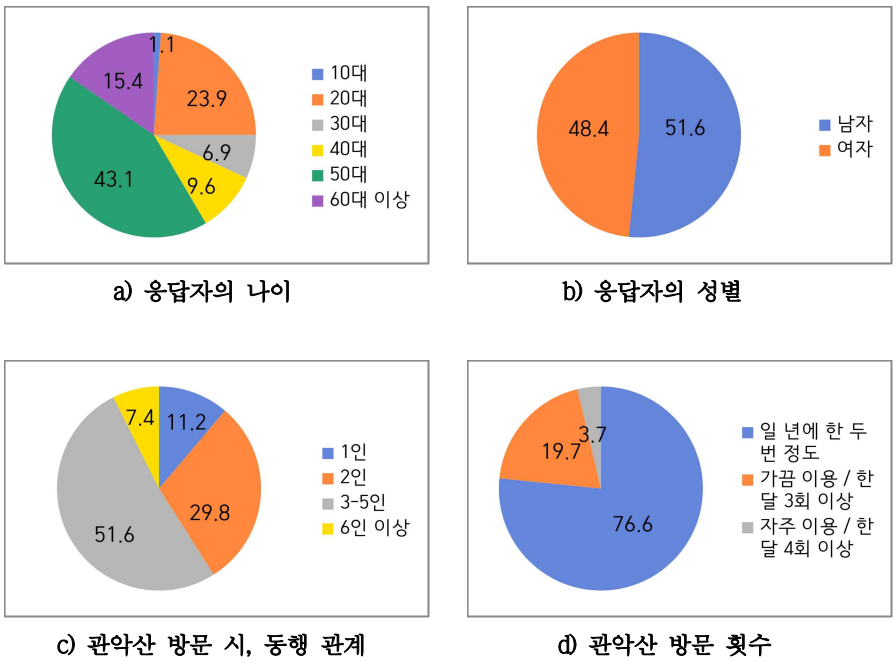
본 설문 조사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과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앞서 이용행태 관찰 조사를 살펴보면 서서 대화하기, 걸으면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등산 전에 관악산 공원 앞이나 제 1 광장에서 같이 스트레칭 하기의 교류 활동이 높은 양상으로 보였다.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등산하거나 하산하는 교류 활동도 보였으며, 인터뷰 내용에서는 위험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아 주거나 등산 중 휴식을 취하는 장소에서 동행한 사람 및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 교류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른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에서 다양한 교류 행태가 보였졌으며, 그 중 행태를 보여준 빈도가 높거나 직접 경험한 행태들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본 설문 조사의 설문 질문으로 정하였다. 또한, 본 설문 조사 분류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 경험에 대한 질문들은 보여준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같이, 1인, 2인, 3-5인, 그리고 6인 이상으로 두었다. 소분류 및 세부내용으로 정해진 질문 항목들은 동행 관계별로 교류 활동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동행 관계별 기준마다 같은 키워드 질문 항목을 질문하였다. 본 설문 조사를 통해, 동행 관계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류 행태를 볼 수 있으며, 동행 관계별 내에서 그리고 관계별 밖에서 나타나는 교류 활동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질문 항목에서 없는 다른 경험의 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있다면 어떤 교류 활동이 있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로인하여, 관악산에서의 동행 관계별 교류 활동에 대한 키워드 및 행태를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여 산에서의 교류 활동 특성과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을 알 수 있다.

2.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

본 설문 조사는 응답자의 나이, 성별, 관악산 방문 시, 동행 관계 그리고 관악산 방문횟수에 대한 일반 정보를 질문하였다. 아래 [그림 4-1-a]를 보면, 응답자의 나이는 10대를 제외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가 답변하였다. 그중 50대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23.9%로 20대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 또한, 60대 이상도 15.4%로 세 번째로 가장 높게 답변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10대를 제외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설문 조사를 위해, 일반 정보에서 관악산 방문 시 동행 관계에 질문하였다. 다음 [그림 3-1-c]를 보면,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으로 관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51.6%로 가장 많이 답변하였고 연인 및 친구와 동행하는 2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29.8%로 두 번째로 높았다. 1인인 혼자 관악산을 방문하는 사람은 11.2%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그룹은 7.4%로 다소 적은 값을 보였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관악산을 방문하는 응답자들은 76.6%로 가장 높으며, 대부분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만 방문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19.7%로 한 달에 3회 이상 관악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나머지 3.7%는 한 달에 4회 이상으로 자주 관악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a) 응답자의 나이 b) 응답자의 성별

c) 관악산 방문 시, 동행 관계 d) 관악산 방문 횟수

[그림 4-1] 설문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 정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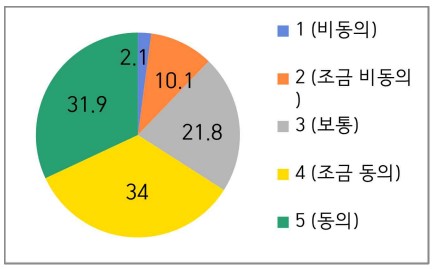
관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서 보여준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 내용에서 키워드로 정리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다음 [그림 4-2]와 같다. 만남 / 만나서 대화하기, 같이 밥 먹기, 같이 술 마시기, 친목 활동 및 취미 생활 공유, 서로 안부 묻기의 키워드 중심으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응답자들이 교류 활동 인식에 대해 동의 및 비동의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 (비동의), 2 (조금 비동의), 3 (보통), 4 (조금 동의), 5 (동의)로 기준을 두어 키워드마다 질문하였다.

[그림 4-2-a]를 보면, 첫 번째 키워드 '만남 / 만나서 대화하기'는 34%로 조금 동의와 31.9%로 동의를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같이 밥 먹기'의 키워드는 38.8%로 조금 동의, 26.1%로 동의 그리고 21.8%로 보통으로 응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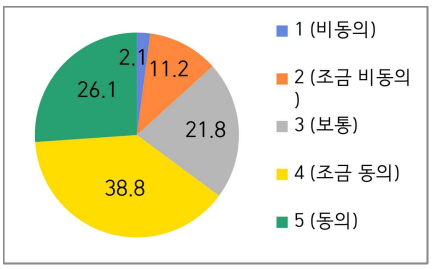
였다. 세 번째 키워드 ‘같이 술 마시기’는 25.5%로 보통, 21.3%로 조금 비동의 그리고 17%로 비동의로 응답하였다. ‘친목 활동 및 취미 생활 공유’라는 키워드는 39.4%로 조금 동의, 25.5%로 보통 그리고 18.6%로 동의라는 응답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서로 안부 묻기’의 키워드는 44.7%로 조금 동의, 20.7%로 보통 그리고 20.2%로 동의라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므로, ‘같이 술 마시기’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같이 밥 먹기’, ‘만나서 대화하기’, ‘친목 활동 및 취미 생활 공유하기’ 그리고 ‘서로 안부 묻기’는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관찰 조사와 인터뷰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대부분이 동의하였으며, 질문 항목 외에 다른 사회적 교류 활동 인식을 보면 둘레길 걷기, 반찬 주고받기, 차 마시기, 같이 쇼핑하기와 같은 오프라인(대면)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SNS에서 게시글을 올려서 댓글 쓰기, 앱으로 선물 주고받기와 같은 온라인(비대면)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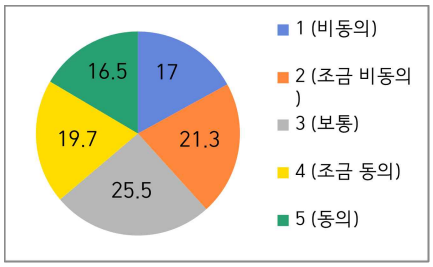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그림 4-2-f]를 보면, 응답자들은 동행 관계별로 사회적 교류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였고 동행 관계에 따라 교류 활동이나 그 유형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4점이라는 조금 동의에 60.7%로 가장 높게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5점인 동의에 21.4%로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하였다. 이 응답으로 보아, 응답자들도 사회적 교류 활동이 일반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의 관계나 함께 하는 사람의 구성원 수에 따라 많이 나타나는 활동과 활동 유형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인식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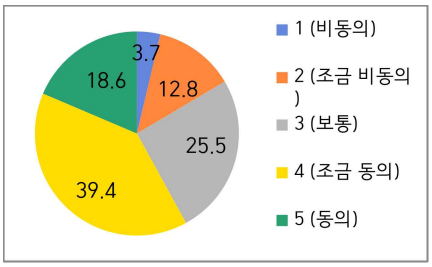
a) 만남 / 만나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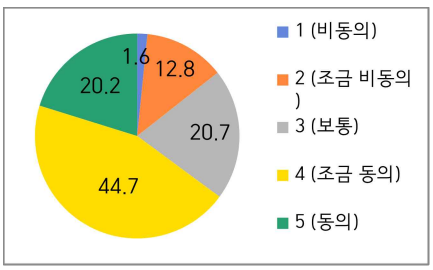
b) 같이 밥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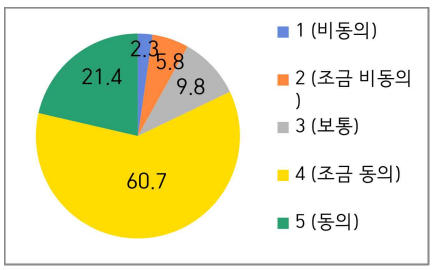
c) 같이 술 마시기



d) 친목 활동 / 취미 생활 공유



e) 서로 안부 묻기



f) 동행 관계에 따라, 교류 활동이 달라지는가?

[그림 4-2] 설문 조사 결과 2-1.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또한, 질문 항목에 있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다른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표 4-2]와 같다.

질문 항목에 서로 안부 묻기도 있었지만, 몇몇 응답자들은 길을 지나가거나

우연히 만났을 때, 안부 인사 정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선물 주고받기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답변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웃이나 가족에게 반찬 가져다주기도 교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친구와 고민 상담하기, 전화 통화하기 및 전화 통화하면서 대화하기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인 온라인으로도 모르는 사람과 관심 주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앱에서 선물 주고받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사진과 게시글을 업로드하여 댓글을 쓰고 공유하는 활동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답변하였다.

카페, 집, 공원 등 어느 장소에서나 함께 차 마시는 행태도 차를 마시면서 일상 대화하므로 교류 활동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친분이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둘레길을 걷고 자연을 같이 즐기는 활동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들을 응답자들이 아는 관계 안에서, 즉,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교류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답변하였다. 대부분이 일상 얘기하기나 가볍게 대화하기, 카페에서 차나 커피를 함께 마시기,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기를 많이 답변하였으며, 추억 얘기라는 키워드도 많이 답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관심 주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행태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카카오톡과 같은 앱으로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행태도 교류 활동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그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그 게시글에 답글을 남기는 행태도 SNS 교류 및 교류 활동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음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질문 중 하나의 키워드로 '완주 인증하기 및 SNS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이라는 키워드도 질문 항목에 추가하였다.

[표 4-2] 설문 조사 결과 2 - 2. 질문 외에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대화	• 가볍게 대화하기 • 마음속 이야기하기 • 부탁할 때 이야기하기 • 고민 상담하기 • 일상 대화하기 • 추억 얘기하기 • 취미나 관심사 이야기하기 • 개인사 이야기하기 • 장래 및 인생 계획 이야기하기 • 종교적 대화하기
운동	• 둘레길 같이 걷기 • 자연 즐기기 • 운동 삼아 함께 야간 등산하기 • 같이 운동하기 • 산을 걸으며 허심탄회한 대화 나누기
생활	• 선물 주고받기 •반찬 갖다 주기 • 전화 통화하기 • 함께 차 마시기 • 안부 인사 정도 (일상 안부 묻기 등) • 같이 쇼핑하기 • 모임 나가기
기타 등등	•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선물 주고 받기 • SNS 교류 • 경조사 참여 •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혜 나누기 •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과 관심 주제로 공감하기 • 같이 게임하기

본 설문 조사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다음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직접 한 경험의 여부와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

에 대한 경험 여부 및 직접적인 경험하였다면, 얼마만큼 자주 그 교류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에 대한 답변은 1, 2, 3, 4, 5로 기준을 두어 질문하였다. 1은 키워드에 대한 경험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혼자서 등산한 적이 없을 시 답변이며, 2는 관악산 등산 시 가끔 한 빈도로서 답변 항목에 넣었다. 3은 2 (가끔 함)보다는 더 많은 빈도를 보이지만, 4 (자주 함)보다는 적은 빈도를 보이는 양상의 답변이다. 마지막으로, 5는 관악산 등산 시 항상 했던 행태로 보여진다.

앞에 이용행태 관찰 조사의 분석 틀처럼 혼자 (1인), 연인 또는 친구 (2인), 소규모 그룹 (3 - 5인) 그리고 대규모 그룹 (6인 이상)으로 기준으로 두어 관악산 방문 시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한 경험에 대한 빈도를 질문하였다. 동행 관계별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을 질문한 다음, 관악산 등산 시, 응답자가 가장 좋아하는 체류 공간 및 체류 시 머무르는 시간을 질문하여 관악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을 알아보고자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의 키워드를 폭넓게 하고자, 질문 항목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을 직접 경험한 행태를 제외하고 다른 사회적 교류 활동을 직접 경험한 것을 질문하였다.

본 질문들은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 내용에서 교류 활동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악산을 같이 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류 활동의 빈도와 관악산에서 마주친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류 활동의 빈도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이 된다. 따라서,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을 방문하면서 동행 관계 내에서 그리고 외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과 동행 관계별로 사회적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혼자서 관악산을 방문하는 질문 항목에서는 동행한 사람이 없으므로 처음 본 사람, 즉 모르는 사람과의 교류 행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혼자서 관악산을 방문했을 때 설문 조사에 대한 답변은 다음 [그림 4-3]과 같다. 혼자서 (1인) 관악산을 등산 할 때, 모르는 사람, 즉, 관악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 활동은 대부분이 전혀 안 함 이거나 경험이 없음 으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교류 활동 키워드는 33%로 응답자들이 가끔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16.5%로 보통 한다고 응답하였다.

"등산 하면서 바위나 벤치에서 잠깐 쉴 때, 혼자 올 때나 친구들과 같이 올 때나 상관없이, 옆 사람이 힘들어하면 가방 속에 있던 물이나 커피를 나눠 마신 적이 있다."
- 40대 응답자 J -

관악산 등산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에 대한 키워드 질문에는 34.6%의 전혀 안 함 또는 경험 없음의 응답보다는 45.7%로 가끔 한다고 응답자 대부분이 답변하였다. 다소 작은 값이지만 10.6%로 보통 한다는 응답자들도 있었으며, 8%로 자주 한다고 응답하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인터뷰에서도 보면, 대부분 40 - 50대 사람들은 등산 및 하산할 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면서 가벼운 대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고 하였다.

"등산하면서 혼자 온 어린 친구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거나 같이 등산할 때는 무슨 공부, 일하는지 물어보고 산에 자주 오는지 물어보거나 요새 사회 이슈에 대한 가벼운 주제들로 얘기하면서 등산할 때가 있다"
- 50대 응답자 K -

관악산 등산 시,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거나 사진 찍어달라는 교류 행태는 다른 행태들과 달리 다소 경험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기라는 키워드의 교류 활동은 45.2%의 가끔 함과 20.2%의 보통, 그리고 18.6%의 자주 함이라고 답변하였다. 앞에 인터뷰 내용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악산 등산 시, 길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길을 안내해준다고 하였으며, 그중 길을 안내하면서 가끔은 사람들과 같이 정상까지 등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본 설문 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교류 활동이라고 보이며, 다른 행태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해주기’라는 키워드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묻거나 부탁하는 행태도 다소 많이 보여지고 있다. 다른 행태 키워드와는 달리, 보통하거나 자주 한다고 16%나 답변하였으며, 가끔 한다라는 응답자들은 35.6%로 가장 높았다. 29.8%로 답변 된 경험이 없거나 전혀 안 하는 행태에 비해 가끔 한다는 행태 빈도의 답변은 다소 높게 보여 졌다.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블루투스 스피커나 핸드폰으로 음악을 같이 듣기’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라는 행태 키워드는 다른 행태들에 비해 경험이 없거나 전혀 안했다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보여진다.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안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는 53.9%이며,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을 한 경험이 없거나 안 하는 경우는 76.6% 가장 높았다. 또한, 같이 스피커나 핸드폰으로 같이 음악을 전혀 들은 경험이 없거나 전혀 듣지 않는 응답자들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처음 본 사람과 스트레칭 하고, 스피커나 핸드폰으로 같이 음악을 듣거나 짐 정리하면서 대화하기에 비해, 위험한 상황에서 처음 본 사람의 손을 잡아 주는 행태는 가끔 한다고 34%가 응답하였다. 인터뷰에서도 그렇듯, 모르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때, 가끔 손을 먼저 잡아 주거나 손을 뻗어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손을 잡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것에 비해 가끔 하고 (34%), 대개 손을 잡아 주거나 (10.6%) 자주 한다 (6.9%) 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등산 할 때 미끄러운 곳이나 위험한 루트일 때는 먼저 손을 잡아 주거나 조심하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는 가서 도와준 적도 있다.”
- 30대 응답자 L -

관악산 등산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를 가끔 한 응답자가 35.1%이었으며, 가끔 이라는 답변보다는 다소 많이 하고, 자주라는 답변보다는 덜 하는 보통이라는 답변은 14.9%로 보였으며, 6.9%로 자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항상 하는 응답자들을 1.1%로 다소 낮게 보이며,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는 응답자들은 총 58%로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던 응답자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보다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와 같이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행태 키워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관악산에서 처음 본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한 적 없는 사람들이나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44.7%로 다소 높다고 보이지만, 가끔 앉아서 대화 (39.9%)를 하며, 대게 대화를 한다고 한 응답자들은 9.6%이었고, 자주 대화 (3.7%)를 하거나 항상 대화 (2.1%)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에서 보면, 등산 하다가 잠시 벤치나 바위에 앉아서 쉴 때, 옆에 앉은 분에게 인사를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연주대에서 앉아서 음식 (준비해 온 도시락, 김밥, 라면, 아이스크림 등)을 먹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등산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큰 바위에 앉아서 쉬거나 쉼터에 있는 벤치에서 쉴 때, 모르는 분이 와서 옆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셔서 같이 앉은 경험이 있다. 혼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옆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쉬면서 얘기하고 갖고 있던 커피를 나눠마셨다."
- 40대 응답자 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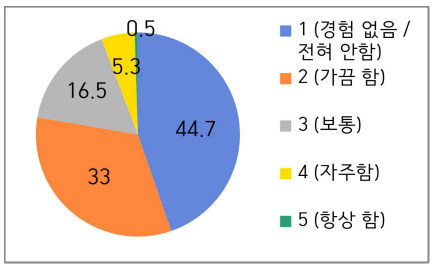
"연주대에서 셀카를 찍고 절에서 라면을 팔아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앉았던 아이가 음료수를 흘려 휴지를 건네면서 가벼운 대화를 한 경험이 있다."
- 20대 응답자 N -

관악산에 혼자 등산하는 응답자들 중 대부분은 전화통화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행태 키워드에 비해, '전화통화'에 대한 응답은 43.6%로 가끔 통화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5%로 보통 전화통화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9%로 자주 관악산에서 전화통화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행태 키워드 중 '항상 함'이라는 응답에 2.7%로 두 번째로 응답이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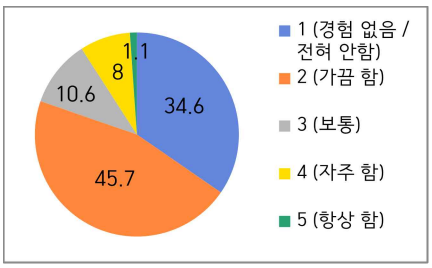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앞에 언급한 설문 조사 중 사회적 교류 활동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SNS에 게시글 올리기, 앱으로 선물 주고받기, 온라인에서 관심주제 대화

하기 등과 같은 비대면 교류 행태도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답변하였다. 또한, 인터뷰에서도 20대, 30대 대부분 응답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그리고 블로그 등 완주한 것을 인증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채팅방에 올리면서 이야기하거나 SNS에 업로드하여 완주 인증하기라는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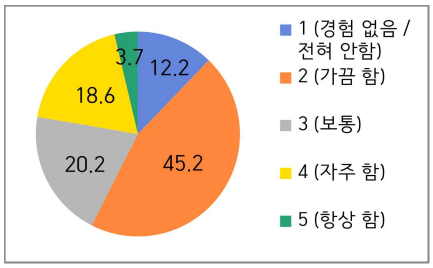
40.7%로 완주를 인증하지 않거나 혼자 등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가끔 사진을 찍어 인증한다고 30.5%의 응답자들이 답변하였으며, 15.8%로 보통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행태 키워드와 달리, 5.6%로 완주하는 것을 항상 SNS (온라인)을 통해 인증한다고 응답하였다. '완주 인증하기'라는 행태 키워드는 혼자 관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항상 하는 행태로서 가장 높은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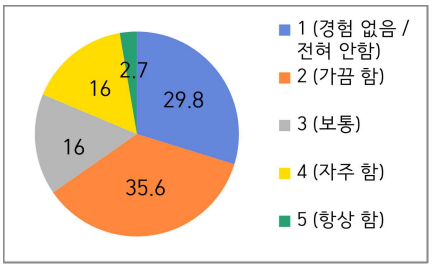
a) 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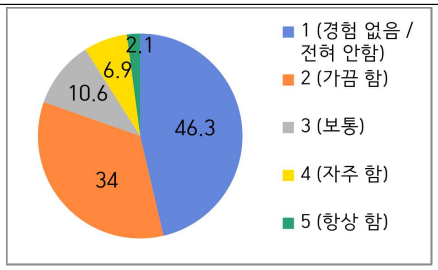
b)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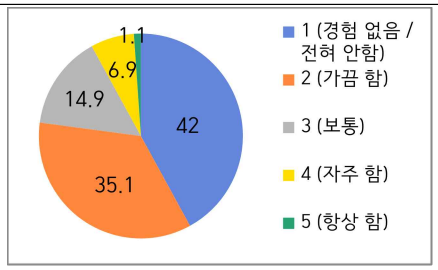
c)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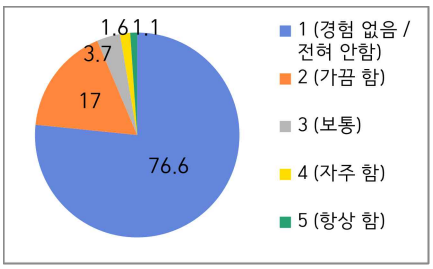
d)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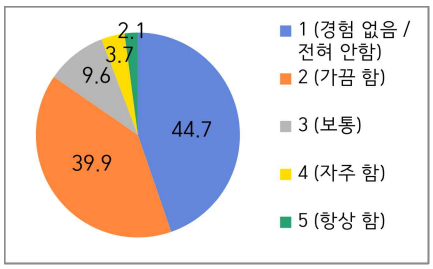
e) 위험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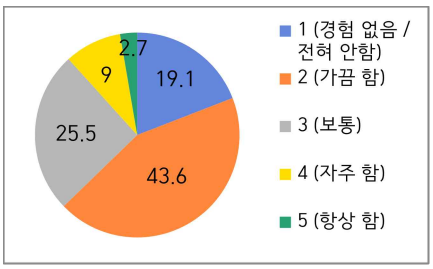
f)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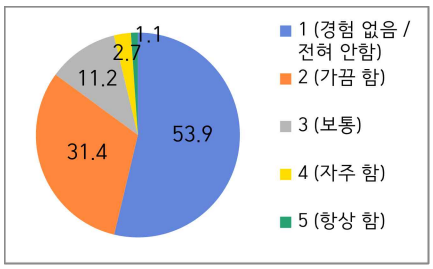
g)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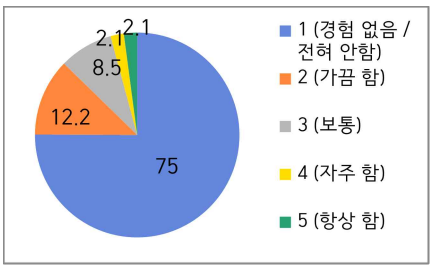
h)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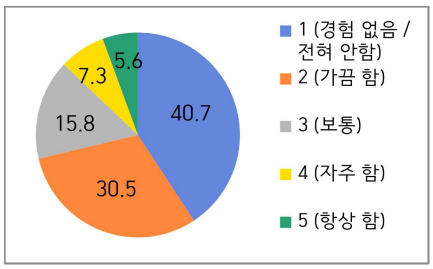
i) 전화 통화



j)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k) 음악 같이 듣기



l) 완주 인증하기 (온라인을 통한 교류)

[그림 4-3] 설문 조사 결과 3-1.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1인 (단위:%)

두 번째로 보는 동행 관계는 연인 또는 친구 (2인)과 함께 관악산을 방문하는 경우의 결과는 다음 [그림 4-4]와 같다.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 관악산을 등산하는 경우, 함께 등산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가끔 한다고 52.3%로 응답하였다. 또한, 보통 나눠 먹는다고 한 응답자들은 8.5%이며, 4.5%의 응답자들은 자주 모르는 사람과 나눠 먹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32.4%의 응답자들은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전혀 나눠 먹은 경험이 없거나 2인으로 동행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4-a]와 [그림 4-4-b]를 보면,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행태보다는 동행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행태에 대한 경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였다. 동행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거나 2인으로 동행한 사람이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겨우 16.6%로 응답하였다. 가끔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응답한 빈도는 3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22.3%로 항상 동행한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주 나눠 먹는 응답자도 20%로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9.1%로 보통 동행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답하였다.

2인으로 동행한 응답자들은 동행한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거나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11.4%로 행태 키워드 중 가장 낮은 결과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2인으로 동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동행한 사람과 대화 (29.1%)를 하거나 자주 이 행태 (23.4%)로 보인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35.4%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거나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48.6%로 동행한 사람과 함께 가끔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한다고 응답하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행태에서 경험이 없거나 전혀 하지 않은 빈도는 13.1%로 다소 적은 경향을 보였다. 가끔 길을 안내해준다는 응답자들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알려주는 응답자들 (16.6%) 그리고 자주 알려준다는 응답자들 (14.9%)도 있었다.

2인으로 동행한 응답자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달라는 행태는 모르는 사람과 하는 행태 키워드 중 항상 한다는 응답(4%)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가끔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응답자들은 49.1%로 이 행태에 대한 경험 빈도 중 가장 높았으며, 보통 사진 찍어달라고 물어보는 응답자들이 17.7%로, 자주 물어보는 응답자들은 15.4%로 보여졌다.

모르는 사람에 사진을 찍어달라는 행태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행태 중 가장 많이 하는 행태로 보인다. 이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경향이 높은 추세를 보이면서,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는 행태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동행한 사람과 항상 사진을 찍는 응답자들은 23.4%로 가끔 찍는 사람들의 응답과 같은 결과값을 보여주며, 자주 동행한 사람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24%로 응답 중 가장 높은 답변으로 응답하였다.

항상 완주 인증을 하기 위해 SNS에 사진과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은 9.2%로 다소 높은 응답 경향을 보이며, 보통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거나 자주 하는 사람들은 같은 값으로 12.7%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가끔 인증한다는 사람들은 41.6%로 응답 중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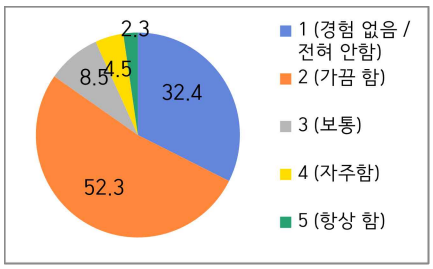
그럼으로써,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행태, 동행한 사람과 사진을 찍는 행태 그리고 완주 인증하기로 보이는 SNS에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상의 교류 활동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인으로 동행한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과 스트레칭 하기와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의 행태가 가장 많이 하지 않는 행태로 보였으며, 모르는 사람과 스트레칭 하기라는 키워드는 76.6%로 모든 행태 키워드 중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보여 주었고, 다른 응답들을 보아 전혀 하지않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는 행태는 48.9%로 모르는 사람과 스트레칭하는 행태 다음 두 번째로 전혀 하지 않는 행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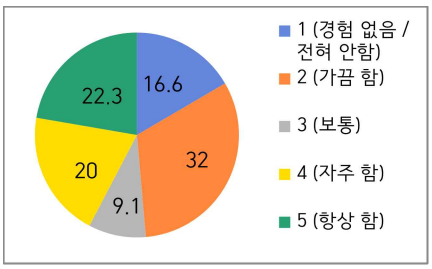
그럼으로써, 모르는 사람과 전혀 하지 않는 경험이 많은 행태가 있는가 하

면, 위험한 상황이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르는 사람 손을 잡아 주는 행태는 39.4%로 가끔 한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높은 응답으로 보여주었고 거의 보통 잡아준다고 13.7%나 응답하였다. 모르는 사람을 손을 잡아준다는 것에 비해 동행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더 자주 (20.6%)하거나 가끔(20.6%)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항상 동행한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고 17.1%로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응답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며, 20%로 거의 보통 잡아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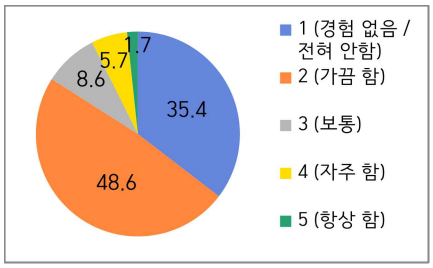
동행한 사람과 항상 앉아서 대화한다는 행태는 다른 행태 키워드들 중 36.2%로 가장 높은 경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주 하는 응답자들은 17.2%로, 거의 보통 하는 응답자들도 13.2%로, 그리고 가끔 대화를 하는 응답자들은 20.1%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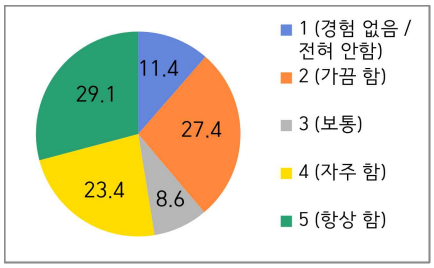
a) 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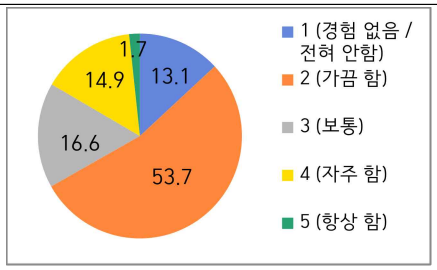
b) 동행한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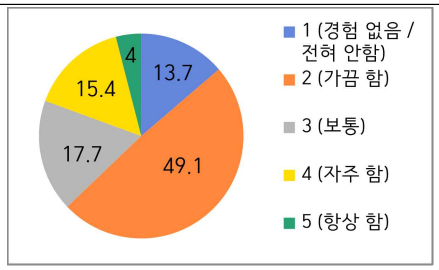
c)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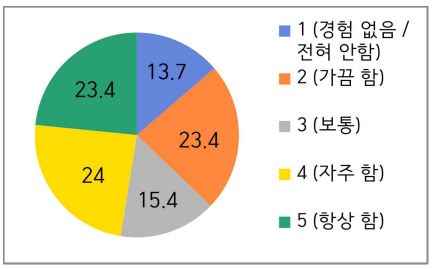
d) 동행한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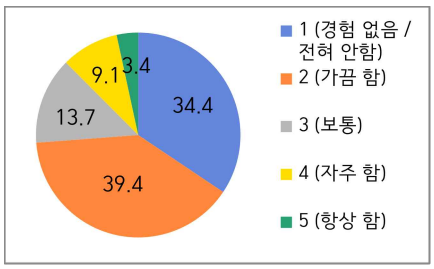
e)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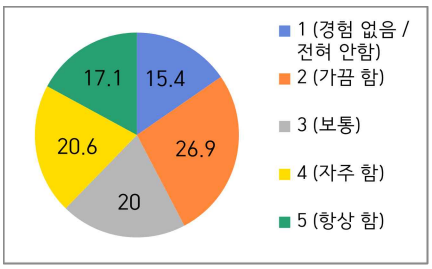
f)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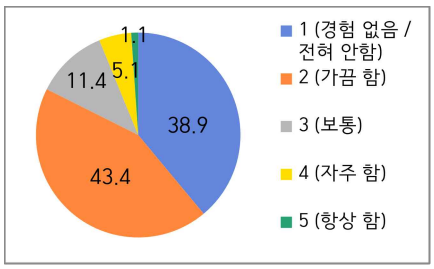
g)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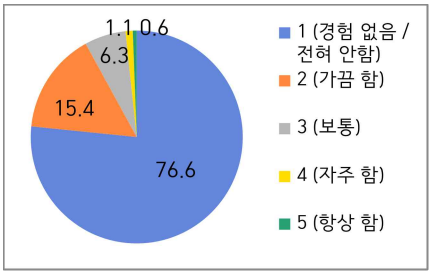
h) 위험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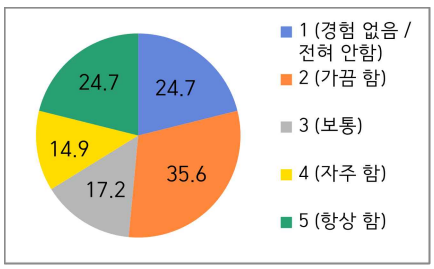
i) 동행한 사람 손 잡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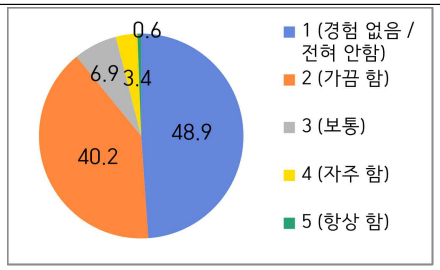
j)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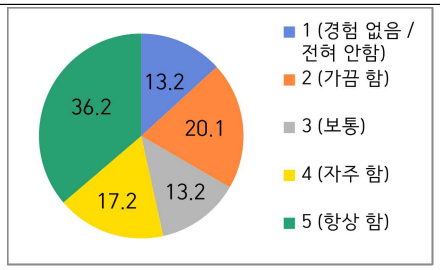
k)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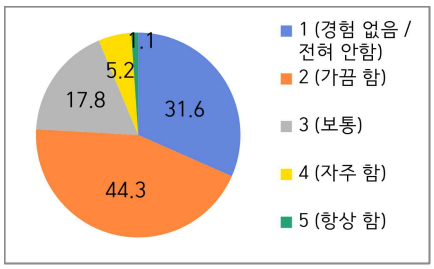
l) 동행한 사람과 함께 스트레칭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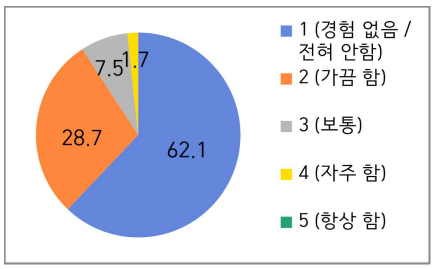
m)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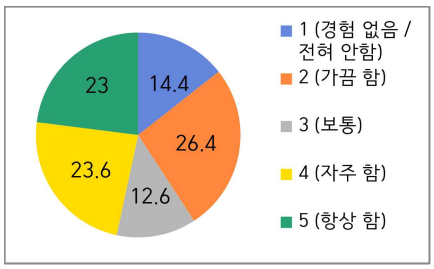
n) 동행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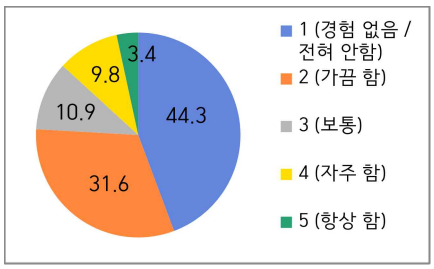
o) 전화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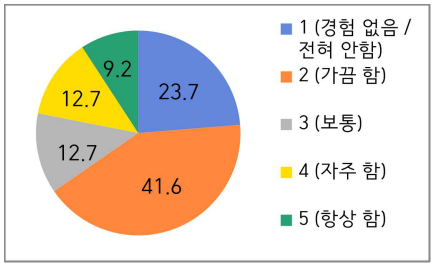
p)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q) 짐 정리하면서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기



r) 음악 같이 듣기



s) 완주 인증하기 (온라인을 통한 교류)

[그림 4-4] 설문 조사 결과 3-2.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2인 (단위:%)

다음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으로 동행한 응답자들의 각 행태 키워드에 대한 경험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소규모 그룹인 대상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4-5]와 같다.

소규모 그룹으로 동행한 응답자들은 앞서 보여준 혼자인 1인 그리고 2인 동행과 비슷하게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행태를 전혀 경험을 안하거나 가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혀 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35.3%이며, 가끔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41%로 응답 중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동행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행태는 앞서 보여준 2인 동행 관계와 비슷항 양상을 보이며 동행한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거나 전혀 경험이 없다고 10.4%로 다소 적은 응답을 보인다. 28.3%로 항상 동행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응답이 응답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20.8%로 응답하였다. 또한, 가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23.1%로 응답하였으며, 대게 보통 나눠 먹는다고 17.3%로 응답하였다.

앞서 보여준 2인 동행 관계에 비슷하게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를 가끔 한다고 49.7%로 응답하였지만, 34.7%의 응답자들은 전혀 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지만,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는 행태는 다소 많은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동행한 사람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로 응답 중 가장 적은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동행한 사람과 항상 대화하는 사람들은 35.8%로 가장 많이 답하였고, 다음으로 가끔 대화한다고 25.4%로 응답하였다. 자주 대화를 하는 응답자들은 17.3%였으며, 대게 보통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17.3%로 보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길을 알려주는 행태도 앞서 보여준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행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길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15%로 다소 적은 경향을 보이며, 가끔 길을 안내해준다고 56.1%가 응답하였다. 또한, 대게 보통 알려준다고 17.3%가 응답하였으며, 자주 알려주는 응답자들은 9.2%로, 항상 알려주는 응답으로는 2.3%로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것으로 보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행태와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는 행태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14.5%로 다소 적은 응답을 보인다. 하지만, 가끔 찍어달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44.5%로 응답 중 가장 많으며, 대게 보통 물어보는 사람들이 17.3%로,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 17.3%로 그 다음 많은 응답이다.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지 않는 사람들은 6.9%라는 매우 적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항상 동행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30.6%로 응답하였으며, 그다음 많은 응답으로는 자주 사진을 찍는 응답자들이 24.3%로 많이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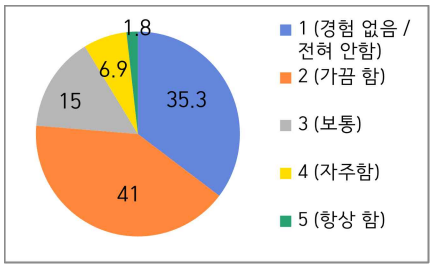
모르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끔 손을 잡아준다고 43.9%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30.6%로 그 다음 많은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동행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경우는 다소 많아 보인다. 가끔 잡아주는 사람들이 31.2%로 응답하였으며, 대게 보통 손을 잡아주거나 (23.7%) 자주 손을 잡아준다고 (21.4%) 응답하였다.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는 앞서 보여준 혼자 1인과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인 2인 동행 관계와 같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70.5%로 대부분 응답자들은 모르는 사람과 전혀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경우와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는 행태도 다소 적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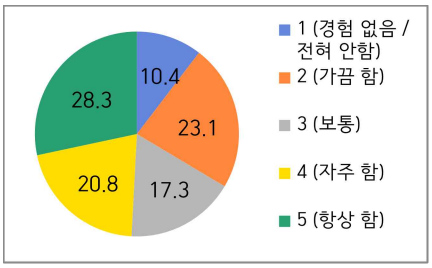
하지만, 동행한 사람과 스트레칭을 하는 응답자 중 가끔 스트레칭을 하는 응답자들이 34.7%로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대게 보통 같이하거나 (20.2%) 동행한 사람들과 자주 스트레칭을 한다고 (16.8%) 응답하였다.

동행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는 행태에서 항상 한다는 응답이 다른 행태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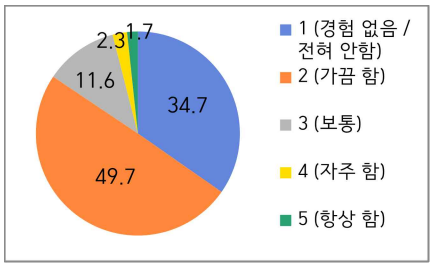
워드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35.8%로 응답 내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이지만, 다른 행태에서 항상 한다는 응답 중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보인다. 자주 대화하는 응답자들도 22.5%라는 응답으로 많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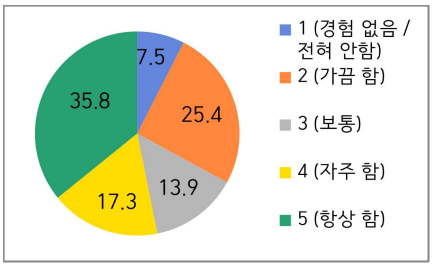
a) 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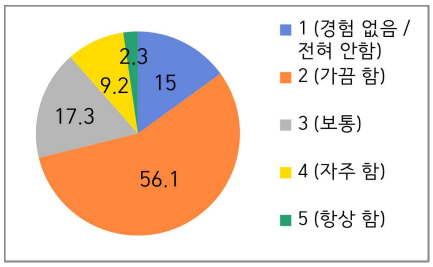
b) 동행한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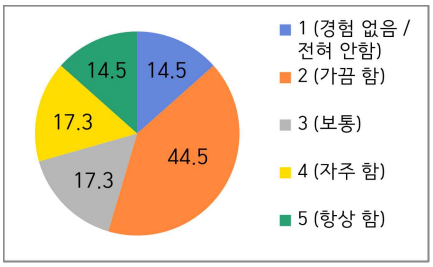
c)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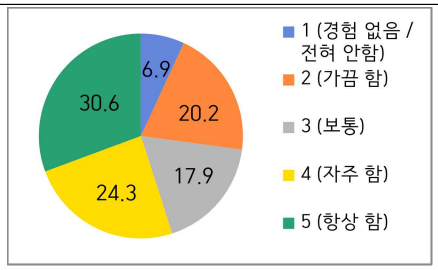
d) 동행한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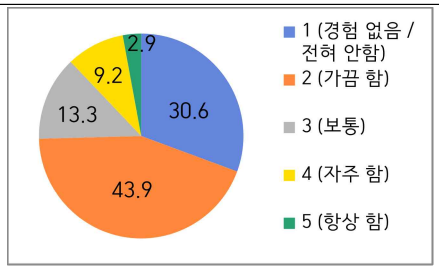
e)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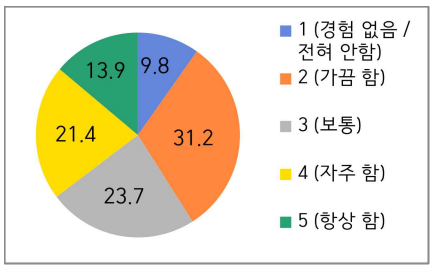
f)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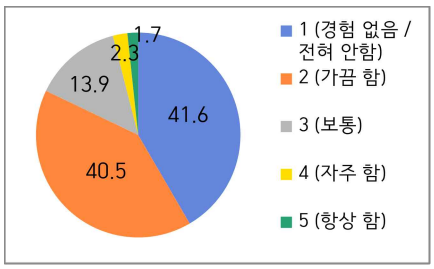
g)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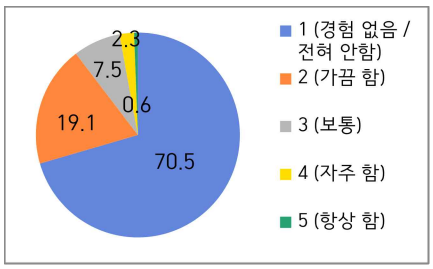
h) 위험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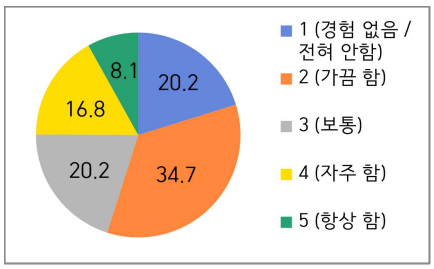
i) 동행한 사람 손 잡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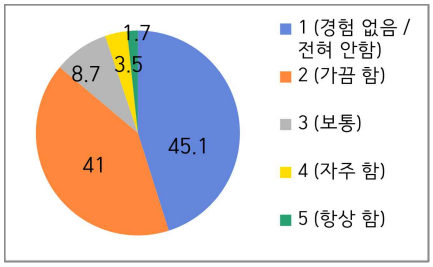
j)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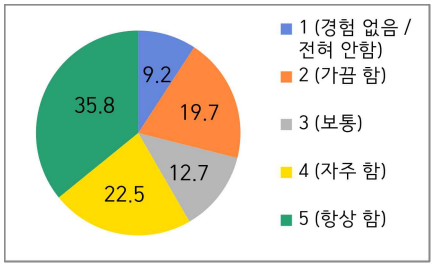
k)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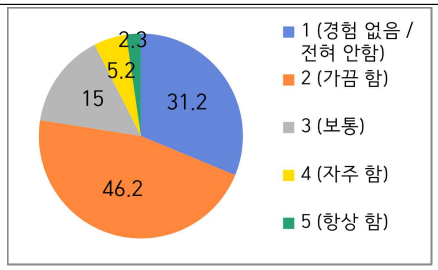
l) 동행한 사람과 함께 스트레칭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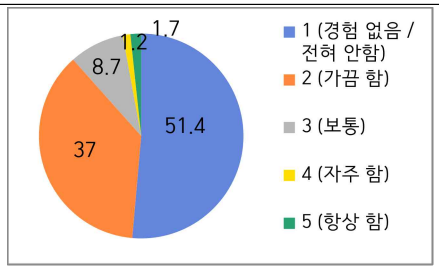
m)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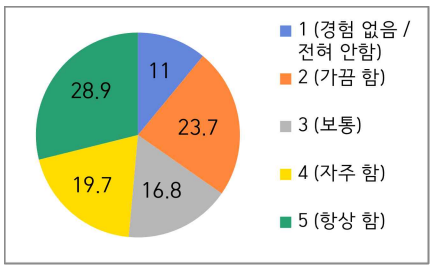
n) 동행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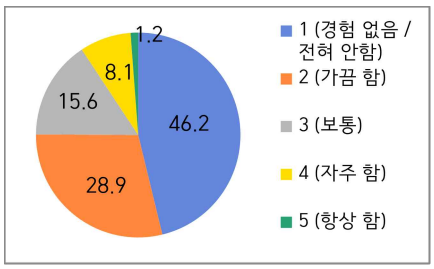
o) 전화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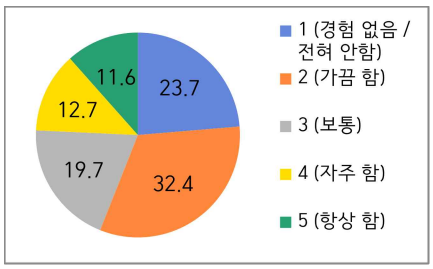
p)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q) 짐 정리하면서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기



r) 음악 같이 듣기



s) 완주 인증하기 (온라인을 통한 교류)

[그림 4-5] 설문 조사 결과 3-3.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3-5인 (단위:%)

다음은 본 설문 조사에서 마지막 동행 관계인 6인 이상의 대규모 그룹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응답이다. 다음 응답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앞서 제시된 혼자 1인,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인 2인, 소규모 그룹인 3 - 5인과 같이, 행태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험의 빈도를 질문하였다.

대규모 그룹으로 동행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행태보다 같이 관악산을 등산한 사람들과 음식을 더 많이 나눠 먹는다는 양상을 보

인다. 동행한 사람과 항상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사람들이 31.8%로 응답 중 가장 많았으며, 가끔 나눠 먹거나 자주 나눠 먹는다는 사람들이 22%로 같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이 43.4%에 비해, 동행한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응답자들이 10.4%로 더 낮으며 동행한 사람과 더 많이 교류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동행 관계와 비슷하게 함께 관악산을 등산하는 사람들과 함께 등산하면서 대화를 항상 하는 응답자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대화하는 사람들은 20.8%로 응답하였다. 또한, 19.1%로 자주 대화하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다. 그에 비해,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이 42.2%로 다소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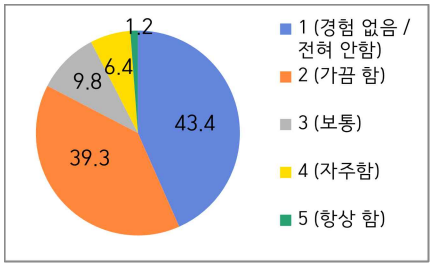
앞에 제시된 소규모 그룹과 비슷하게 대규모 그룹으로 관악산을 방문한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끔 안내해준다는 사람들이 52.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대게 보통 알려준다는 응답자들도 16.2%로 응답하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교류 활동과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행태도 다소 많이 보였다. 특히, 동행한 사람과 사진을 찍는 교류 활동은 항상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31.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23.7%로 자주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 응답자는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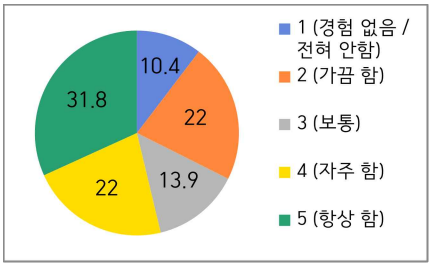
하지만, 앞서 제시된 동행 관계들과 같이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69.9%의 응답을 보였다.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는 행태도 그다음으로 거의 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스트레칭을 하는 행태와 다르게, 두 행태는 가끔 말을 건네는 응답자들이 39.3%으로 다소 응답이 있었으며, 가끔 동행한 그룹과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응답들도 41.6%로 다소 높은 응답의 양상을 보였다.

동행한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하는 교류 행태는 당연히 항상 대화하는 사람들이 34.7%로 가장 많은 양상을 보이며, 자주 하는 응답자들 (25.4%)도 보였다. 또한, 짐을 정리하면서 동행한 사람들과 대화를 항상 하는 응답자들 (28.3%)과 자주 대화하는 응답자들 (25.4%)도 매우 높은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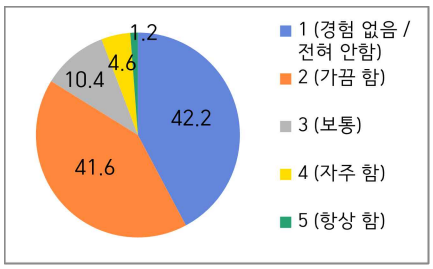
대규모 그룹으로 구성된 동행 관계는 완주 인증을 가끔 한다고 30.1%의 응답자들이 응답하였지만, 27.2%의 응답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거나 전혀 온라인을 통해서 교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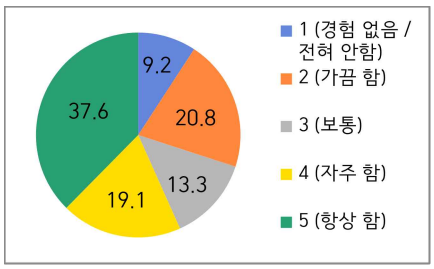
a) 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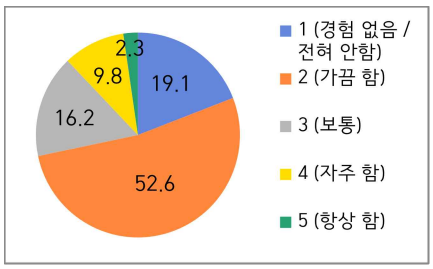
b) 동행한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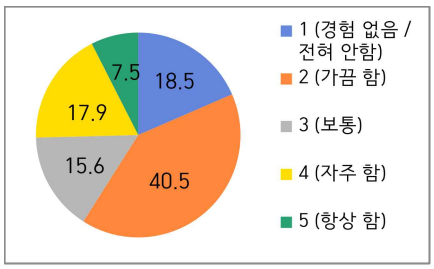
c)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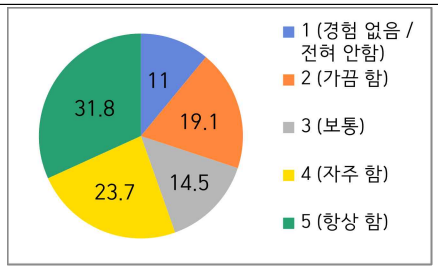
d) 동행한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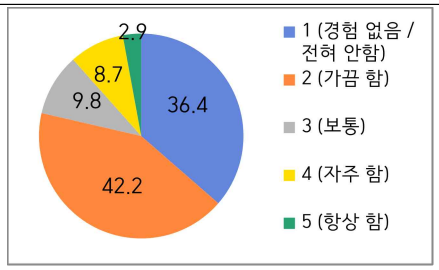
e)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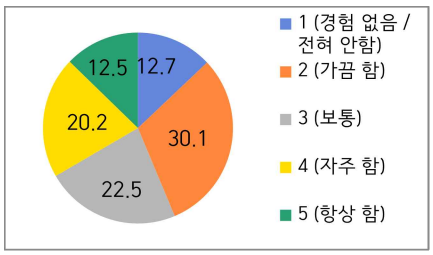
f)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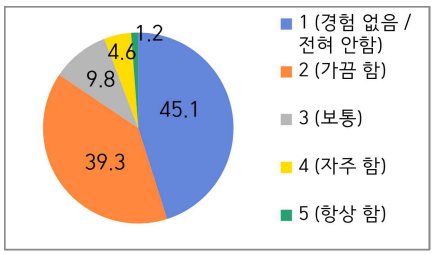
g)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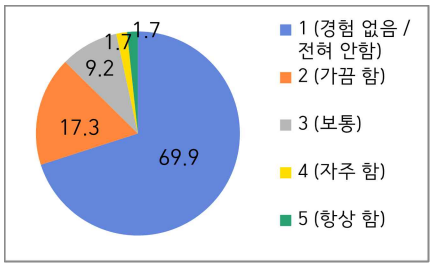
.h 위험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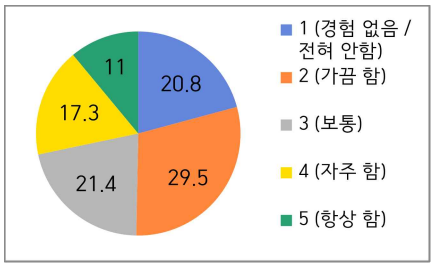
i)동행한 사람 손 잡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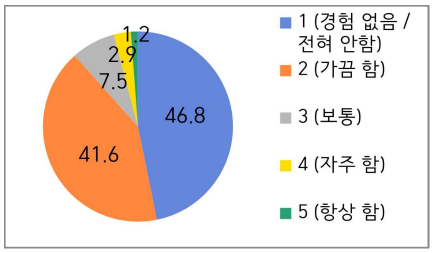
j)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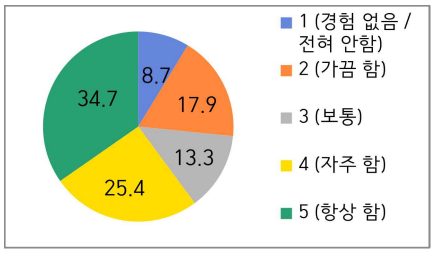
k)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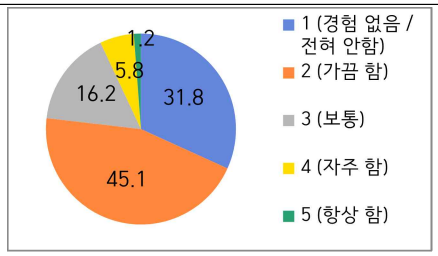
l) 동행한 사람과 함께 스트레칭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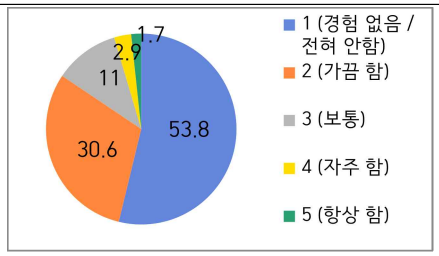
m)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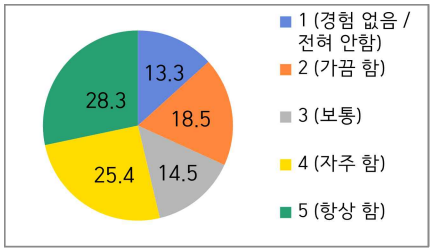
n) 동행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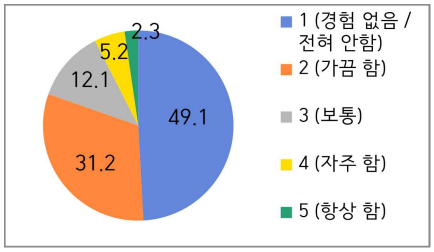
o) 전화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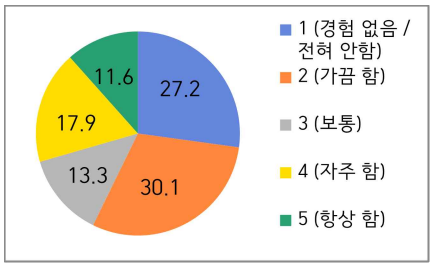
p)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q) 짐 정리하면서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기



r) 음악 같이 듣기



s) 완주 인증하기 (온라인을 통한 교류)

[그림 4-6] 설문 조사 결과 3-4.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6인 이상 (단위:%)

다음 [표 4-3] 는 관악산 등산 시, 잠시 휴식하였을 때나, 교류 활동이 일어난 장소 중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하였으며, 그 공간에서 얼마만큼 체류하는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주대, 제 4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앉아서 쉬는 다양한 교류 행태들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주대에 가까운 절에서 같이 라면이나 절 밥(공양)을 먹는 응답자들도 많았으며, 절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 1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무는 응답자들도 있다. 또한,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벤치에서 쉬거나 바위 또는 폭포 근처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휴식을 갖는 응답자들도 많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10 - 30분 정도 응답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본다. 하지만, 연주대나 절 같은 공간은 30분에서 1시간동안 체류하는 응답자들도 대게 많았다. 그 공간에서 같이 사진찍기, 음식을 나눠 먹기, 앉아서 대화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양상도 알 수 있었다.

[표 4-3] 설문 조사 결과 3 - 5. 관악산 등산 시, 좋아하는 장소 및 체류 시간

연주대	10분 / 20 - 30분 / 15분 / 20분 / 30분 / 40분 / 1시간 등등
제 4 쉼터	5 - 10분 / 10분 / 15분 / 20분 / 20 - 30분 / 30 - 40분 / 등등
국기봉	5분 / 10분 / 15분 / 30분
절 (연주암)	10분 / 1시간
마당바위 / 벤치 / 각 쉼터 / 폭포 근처 / 둘레길 등등	15분 / 10분 / 30분 / 40분 등등

다음 보여지는 [표 4-4]에서는 관악산 등산 시, 설문 조사 질문 항목에 없는 행태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적 교류 활동을 경험의 여부와 경험을 하

였다면,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중간에 휴식 할 때 음식을 주고받았던 모르는 사람들이나 다른 코스에서 만나서 인사하거나 가볍게 대화한 사람들이랑 정상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행태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함께 등산한 사람들끼리는 일상에서 만났을 때 하지 못했던 고민 상담이나 힘든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낼 수 있었으며, 가족끼리 온 응답자들은 가족들과 집에서보다 등산할 때 더욱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또한, 어떤 응답자는 등산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감정교류가 저절로 생기는 거 같다고 답변하면서, 모르는 사람과도 친근하게 대화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며 친근감이 생긴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응답자는 모르는 사람과 정상에서 완주한 기념으로 막거리 한잔을 나눠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행 관계 내에서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다가 자연 경관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찍을 때 자연 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벼운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행태 또한 사회적 교류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심신단련 및 시원한 공기를 맡기,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기, 그리고 겨울에는 산에 눈이 쌓인 것을 보러 가기 위한 목적이 생겨 주변 사람들과 산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산에서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소규모 그룹이나 대규모 그룹과 같이 그룹으로 등산 사람들 중 어떤 응답자는 등산을 하면서 다음 그룹의 스케쥴이나 모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표 4-4] 설문 조사 결과 3 - 6. 관악산 등산 시, 다른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대화	• 힘든 이야기 꺼내기 / • 현재 어려운 얘기하기 / • 고민 상담 • 말하지 않아도 감정교류가 생기는 거 같아서 모르는 사람과도 친근감이 생김 • 올라가면서 만난 사람과 대화하기 /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 날씨 얘기하기 • 자연경관에 관해 얘기하기 • 동행한 사람과 인생 얘기하기 • 일상 이야기하기 (더 깊게 얘기하기) / • 현재 근황 얘기하기 • 서로 알고 있는 친구의 근황 얘기하기 • 가족 이야기 • 정치나 경제 얘기하기 • 각자 추억 이야기 나누기 • 평소 하지 않는 마음 속 얘기하기
운동	• 쉬지 않고 친구와 완주 내기하기 • 관악산 주변 둘레길 걷기
생활	• 절에서 아이스크림이랑 라면 먹으면서 같이 온 사람과 대화하기 • 절에서 사람들과 밥 먹기 • 음식 주고받은 사람을 다른 코스나 정상에서 만나면 인사하기 • 넘어진 사람 부축해주기 • 영상 통화하기 • 힘들었던 얘기나 삶에 관한 이야기 들어주기
기타	• 사찰 순례 • 단풍 구경하기 • 소모임, 단체 모임의 방향성 및 계획 논의하기 • 절 식당에서 함께 사람들과 밥 먹기 • 길 잃었을 때 동행해서 같이 내려오기 • 모르는 사람과 정상에서 막걸리 한잔하기 • 아름다운 경치 전망 • 동행한 사람과 함께 막걸리 한잔하기 • 풍경 좋은 곳에서 사진 찍기 • 젊은 날 같이 회상하기 • 같이 울기 • 경기 보면서 어디 지역인지 얘기하기 • 힘들어하는 등산객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기 • 전망 구경하고, 새소리, 계곡 소리 같이 듣기

2절. 소결

1. 관악산에서의 동행 관계별 이용행태 유형

관찰 조사와 이용행태 빈도 분석 결과에서는 주중보다 주말에 모든 공간에서 조금 더 다양한 교류 행태를 보였으며, 주로 2인 또는 소규모 그룹의 교류 행태의 빈도가 더 높고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규모 그룹은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교류 행태가 더 보였으며, 혼자 온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및 대화를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일도 있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른 그룹들에 비해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먼저 말 건네주기 등과 같은 관악산에서 처음 본 사람들과의 교류 행태 빈도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위험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아 주는 교류 행태는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인부터 소규모 그룹, 그리고 대규모 그룹까지의 결과를 보면, 함께 등산 한 사람들과의 교류 행태 경험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 행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에서 '자주'한다는 결과를 나타났다.

또한, 2인의 경우, 같이 스트레칭하는 행태도 보이며, 등산로 입구와 연주대에서 사진을 찍는 교류 행태도 나타났다. 친구나 가족끼리 등산 한 경우는 힘든 이야기나 고민 이야기를 하며 등산을 하거나 추억 이야기를 하며 등산하는 경험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동행 관계들은 처음 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할 때, 새소리나 계곡 소리를 앉아서 같이 들으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거나 자연 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정상에서는 도시를 바라보며 어디 지역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보였다. 절에서 동행한 사람들과 밥이나 라면을 먹다가 옆 사람 또는 옆 그룹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음악을 같이 듣는 교류 행태도 보였다.

모든 동행 관계에서는 다양하게 교류 행태가 보이지만, 혼자 온 사람의 경

우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교류 행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그룹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동행한 사람들간에 교류 행태를 다양하고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동행한 사람들 중 대규모 그룹보다는 2인 또는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 활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는 각 동행 관계마다의 교류 행태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걸으면서 대화하기, 같이 스트레칭하기, 만나서 악수하기 등과 같은 '동적 교류 행태'와 사진 찍기, 서서 대화하기, 앉아서 대화하기, 앉아서 음식 나눠 먹기 등과 같은 '정적 교류 행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유형을 세부적으로 '대화', '운동', '생활'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특성

앞에 제시된 선행연구에서는 아파트 내 옥외 공간이나 길, 골목길에서 아는 사람이나 이웃들끼리 만나서 가벼운 인사하고, 대화하고 노인들은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게임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놀이하는 교류 행태를 보여준다. 또한, 앉아서 대화하고,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휴식을 하는 정적인 행태와 걷기, 서기와 같은 동적인 행태는 본 연구의 해석과 비슷하게 결과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도 관찰 조사와 설문 조사에서도 정적인 행태와 동적인 행태 둘 다 포함된 행태를 조사하였다.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은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이웃 끼리, 친구끼리, 가족 끼리 등과 같이 원래 알고 지냈던 관계나 공간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 간에 관계 안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관악산은 함께 방문 한 사람과의 교류 행태도 많이 나타났으며, 관악산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과의 교류 활동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 결과에서는 2인 형태의 친구나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등산한 사람들은 동행한 사람과 쉼터나 바위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 경험이 많았다. 관찰 조사와 인터뷰에서 도출된 교류 행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질문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친구나 연인과 함께, 또는 소규모 그룹, 또는 대규모 그룹으로 등산한 이용자들 중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거나 등산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과 가벼운 대화나 앉아서 휴식할 때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등산하다가 처음 본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사람을 절이나 연주대에서 다시 만나 한번 더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풍경이나 자연 경관을 같이 바라보면서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인터뷰 내용으로 보아, 혼자 등산 한 사람도 혼자라서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휴식하면서 옆 사람과 가벼운 대

화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공간에서 다 함께 등산이라는 운동을 하게 되어 서로에게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류 행태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 즉, 동행 관계 밖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뷰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응답자들은 도시에 카페나 집 등에서 꺼내지 못했던 자기의 속마음이나 힘든 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 기회를 통해 함께 등산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끼리 등산한 사람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집에서도 대화를 자주 하고 자주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빠나 엄마에게 마음속 깊은 얘기나 친구들 관계, 학교에서 있었던 일, 힘든 일 등등을 등산하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도시나 집에서는 각자의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지만, 산에서는 개인의 공간보다는 공공의 공간이며, 등산로라는 하나의 길로 정상까지 몇 시간 동안 함께 걸어야하는 산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교류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끼리나 친구들끼리 온 그룹들은 같이 등산한 사람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휴식을 취할 때,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옆 사람이 혼자 오거나 같은 바위나 벤치에 앉았을 경우 대화를 먼저 하는 경험도 많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교류 활동은 아는 사람끼리의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교류 활동이며 그 안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등산로 입구부터 정상까지 도달하는 데에 등산로라는 길로 구성되어 있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는 서로 같은 목적의 네트워크가 생기며, 계속 걸어야 하고 주변에 자연 요소가 있어 휴식을 취하고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의 속성이 있으므로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은 동행 관계 내 및 밖에서 둘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동행 관계 내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은 도시에서의 교류 활동보다 좀 더 깊은 활동을 하며, 동행 관계의 관계성이 좀 더 깊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는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질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는

친밀감이 형성됨으로써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은 친밀감을 통한 관계성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5장 결론

1절.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산림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안이나 근교에 있는 공원 및 산에 방문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사람은 연인, 가족, 친구 그리고 동호회 등과 같은 다양한 관계와 함께 등산하며 휴식과 친목 활동을 목적으로 산을 방문한다. 또한, 등산을 하면서 대화하고, 사진 찍는 것과 같은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행한 관계로부터 교류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행태를 파악하고, 동행 관계에 따라 그리고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알아보고 1인, 2인, 3-5인 인 소규모 그룹, 그리고 6인 이상인 대규모 그룹으로 기준을 두어 동행 관계별 사회적 교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악산 등산로인 관악산 공원을 지나 관악산 호수공원 일대 광장, 제 4 쉼터 그리고 연주대까지 대상지로 선정하여 관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용행태를 관찰하여 동행 관계마다 어떠한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한 교류 활동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 내용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인 행태 키워드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2년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서 보여준 관찰 조사와 인터뷰 내용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여부와 빈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방법 중 실증 단계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총 188부가 회수되었으며,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인 경험과 그에 따라 동행 관계별 빈도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다르게,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을 이용함으로써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동행 관계별로 사회적 교류 활동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용행태 관찰 조사, 인터뷰 및 설문 조사의 분석 및 해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악산에서의 이용행태 관찰 조사를 통해,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 요소와 비슷하게 양상을 보였지만, 도시에서보다 좀 더 다양하게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관악산에서의 관찰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동행 관계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교류 활동이 조금씩 달랐으며, 그 활동들의 빈도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내용으로 보아, 동행 관계에 따라서 사회적 교류 활동의 유형과 그 교류 행태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용행태 관찰 조사와 인터뷰를 실증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동행 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류 활동의 경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인 혼자 등산하는 이용자는 동행한 사람이 없으므로 가끔 모르는 사람과 교류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2인부터 소규모 그룹, 그리고 대규모 그룹까지는 동행한 사람과의 교류 행태를 다소 많이 보였으며, 처음 만난 사람과도 교류 행태의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의 결과를 도출한 현상을 해석하여 도시 근교에 있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처음 만나는 모르는 사람과의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아, 동행 관계별 내에서 (아는 사람끼리) 그리고 밖에서의 (모르는 사람끼리) 두 관계에서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 의미를 살펴보면 관계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성을 더 확장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높아지고 확장된 관계성 때문에 산에서 취할 수 있는 교류 활동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는 사회적 교류 활동이 관계별,

행태별로 제한적이지만,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는 관계에서의 선을 넘나들 수 있으며, 행태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교류 활동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이 되며, 계속 걸어야 되고, 자연 요소 속에 다양한 주제와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행태들을 경험함으로써 산의 속성이 사회적 교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에서의 교류 활동은 골목길, 도로, 단지 내, 아파트 내 옥외공간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보여지는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다르게 산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 교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이야기나 단순한 이야기, 텃밭 꾸미기, 아이들끼리 놀기 등과 같은 단편적인 교류 활동이 도시에서 일어나지만, 산에서는 가벼운 대화부터 평상시에 나누지 못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음식을 나눠 먹고 등산이라는 운동을 함께 몇 시간 동안 함으로써 함께 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악산을 함께 방문한 사람과의 교류 행태도 나타났지만, 관악산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과의 교류 행태도 나타나는 것을 보아 산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활동을 통해 동행한 사람인 가까운 관계는 관계성이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될 수 있으며, 처음 만난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 활동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어 새로운 관계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교류 활동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 없으며, 아는 사람끼리의 관계인 동행 관계 내에서와 처음 본 사람의 관계인 동행 관계 밖에서 모두 교류 활동이 다양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과 제한된 교류 행태를 가진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산에서의 교류 활동 비교 양상을 고찰하여, 추후 산림 복지 서비스, 산림 기본 계획, 산림에서의 시설 계획과 같은 제도나 정책을 추진 시, 본 연구가 기초조사 자료 연구로서 되길 바란다.

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의 설문 조사에서 마지막 항목인 관악산에서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응답 항목에서 제한점을 찾을 수 있다. 응답 항목에서 1(경험 없음 및 전혀 안 함)으로 기준을 두어, 응답자들 대부분이 대규모 그룹이나 혼자 관악산을 방문한 경험이 없을 때, 1 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분석 및 해석 도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다는 응답에 속하여 연구의 해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관악산 전체 공간별 사회적 교류 활동보다는 관악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사회적 교류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의 대상지를 제한하였다. 관악산에는 다양한 산림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따라 교류 활동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요소가 사회적 교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간별에 따라 교류 행태를 분석하고 공간별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향후의 연구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인터뷰와 설문 조사에서의 제시된 온라인에서의 교류 활동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에서도 비대면 회의, 영상 통화, 앱으로 선물 주고 받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관심 주제 대화나 취미 생활 공유 등과 같은 교류 행태가 나타나므로 온라인상에서의 교류 행태도 고려할 수 있다. 산에서 행태를 관찰하여 교류 활동을 밝히는 대면(오프라인)의 연구 방법과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같은 SNS에서 웹크롤링 또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대면(온라인)의 연구 방법을 추후 연구 방법으로 제시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나타나는 교류 활동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Allan, G. A. (1979). *A Sociology of Friendship and Kinship,* Geroge Allen and Unwin, London.

Havighurst, R. J. (1968).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dogist, 8, 20-23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Jahn Gehl (2011). *Life Between Buildings - Using Public Space*, Sixth Editions, Island Press, Washington, DC.

[학술지]

구자훈, 김슬옹, 노정민 (2011). "서울시 골목길 담장허물기의 여부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활동의 양적 차이 비교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12(4). 5-20

구자훈, 김슬옹 (2009). "서울특별시 골목길 담장허물기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자 특성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3). 181-194

김남선, 우룡 (1995).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형성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 93

김보균, 최경호, 박인성 (2014). "산림 걷기 운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8(3). 391-397

김선아, 정다워, 염동걸, 김건우, 박범진 (2015). "숲 체험 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숲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19(3). 51-58

김선아, 정다워, 김건우, 박범진 (2015). "숲체험 활동이 초등학생의 숲에 대한 태도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9(4). 35-43

김원필 (2015). "대학기숙사 물리적 주거공간환경이 기숙사 거주학생들간 인지

된 공동체의식 및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2(5). 3-10
김주연, 신창섭, 연평식, 이지윤, 김미란, 김재근, 유윤희 (2013).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정신 건강 회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17(4). 69-81
김지환, 박청호, 구자훈 (2017).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사회적 교류에 관한 연구 - 강일 택지개발지구의 물리적·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8(1). 91-103
김태완, 장미선 (2022). “아파트 옥외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와 이용행태에 관한 심층 사례 연구,” 『한국주거학회』, 33(2). 23-30
김현주, 최재필 (2021). “사회적 혼합아파트의 공간구조와 입주민 간 교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37(4). 93-103
류래호, 한봉호, 곽정인 (2019). “관악산 무장애 숲길 이용자 맞춤형 자연탐방 해설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조경학회』, 2019(2). 45
박선미 (2020). “산림 치유 활동이 정신건강 및 신체적 자각 정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4(3). 83-97
박정수 (2019). “사회적 접촉 및 사회 활동 참여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문화학술원』, 10(4). 905-916
박정열, 김태희, 김성윤 (2010). “수도권 거주자의 산림 방문수요 결정요인 분석 -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도봉산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국산림과학회』, 99(1). 36-46
박청호, 김지환, 구자훈 (2017). “혼합단지 내 분양·임대 거주자 간 사회적 교류에의 영향요인 차이분석 -강일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8(3).61-75
서윤애, 연평식, 신창섭, 김재준 (2013). “숲길 유형별에 따른 이용행태 및 심리적 편익 분석,”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17(3). 19-29
서현보 (2020). “노인의 이웃교류활동과 집 앞 대화 장소의 물리적 구조,”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7(1). 85-97
서현보 (2020). “한국노인의 사회적 교류와 동네장소의 복지활용 가능성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7(4). 498-510
손지원, 하시연 (2012). “숲길 특성에 따른 이용객의 이용행태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과학회지』, 101(2). 309
송민경, 방경숙 (2017). “초등학생 대상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아동간호학회』, 23(3). 300-311

오영주, 강성중 (2018). “1인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에 대한 연구,”『한국디자인문화학회』, 24(1). 402-411
유기중 (2011). “관악산 등산로 이용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5(1). 111
유재완, 박미규, 황희연 (2015). “분양아파트 단지와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민의 공동체의식 비교 분석 - 청주시 용암동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비교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3(1). 1-18
윤갑식, 오용준 (2014).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의식 활성화 프로그램의 중요도 분석과 함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3). 125-137
유영선, 김현창, 이창재, 장남철, 손병국 (2014). “산림욕을 활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우울증해소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5(3). 55-65
이담, 원수연, 손용훈 (2018). “관악산 산림녹지 변천과정과 단절된 능선유형분석,” 『한국조경학회』, 2018(1). 85
이도현, 곽동화 (2020).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학교와 노인복지광의 복합화 공간계획,”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5(7). 47-58
이한용, 윤태훈, 주성범 (2018). “산림 트레킹 운동이 여자 대학생의 신체구성, 최대근력 및 주관적 건강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2). 561-568
이혜린, 김재준, 이민하, 강민지, 박수진 (2011). “등산활동의 건강 관련 동기요인과 유인요인 분석,” 『한국산림과학회』, 2011. 380
임정언, 성종상 (2016).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텃밭활동에 의한 이웃주민간 사회적 유대감 형성 효과에 관한 연구 - 텃밭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7(3). 25-40
장수정, 남경숙 (2015). “고령자의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거지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초 연구,”『한국실내디자인학회』, 17(1). 277-280
장동현, 박수빈 (2013). “아파트 거주자의 옥외공간 사용, 이웃관계, 커뮤니티 의식의 상호관계에 대한 계량적 검증,” 『대한건설학회』, 29(12). 123-130
전진영, 신창섭 (2017). “간접적 산림체험이 인체의 심리에 미치는 효과,” 『한국환경생태학회』, 31(4). 420
주효진, 박현환, 정솔, 김두영, 황은정, 도광선 (2021). “스트레스 고위험직군의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

회』, 35(4). 333-356
최가영, 김통일, 김재준 (2016). “IPA를 활용한 자연휴양림 운영주체별 이용행태 및 관리방안 연구 - 경기도 자연휴양림 6개소를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2). 41-55
최열, 공윤경 (2007) “공동주택 단지설계요소 및 거주자 특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5). 83-90
최유선, 노시학 (2000). “주택가 길의 차량통행이 도시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 『대한교통학회지』, 18(6). 33-43
한경혜, 최희진 (2018). “도시노인의 사회적 교류, 신체활동과 일상적 행복감의 관련성 : 개인특성의 맥락효과를 고려하여,” 『한국노년학』, 38(4). 1083-1105
Huang, K. T., Linm T. P., & Lien, H. C. (2015). Investigating Thermal Comfort and User Behaviors in Outdoor Spaces. Advances in Meterology, 1-11
Kim, C. J., Kim, Y. O., & Park, Y. K. (2002). “A Study on the REsident'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nfiguration of Spatial Structure for Outdoor Space in Urban Apartment Complex,”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e of Korea,* 18(11). 37-44
Kwak, Y. J., Park, C. K., & Kim, Y. S. (2010). “Analysis of Usage Pattern of Outdoor Space in Apartment Compelx,”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e of Korea,* 12(2). 81-90
Unger, DG., Wandersman, A (1985). “The importance of neighbors: th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components of neighbor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2. 139-170
Volker, B., Flap, H., Lindenberg, S. (2007). “Whe are neighborhoods communities? Community in Dutch neighborhood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 99-114
Hillery, G, H (1995). “Definitions od Community : Area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학위 논문]

유재환 (2014) 아파트단지 거주민의 공동체의식 분석 - 용암동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경 (2016) 구로동 저층주거지 도시협곡 공간의 사회적 교류 활동 양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석사학위 논문

우룡 (1995) 아파트단지주민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주민 관계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우 (2015) 사회적 교류의 관점에서 본 저층주거지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논문

장윤선 (2017) 치유숲길의 공간특성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한・일간 치유숲길 사례비교를 중김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석사 논문

[기타]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산림청. 2021

『숲과 문화 연구회』 숲과 문화. 제5권 제2호 통권 26호, 1996

부 록

[인터뷰]

1. 인터뷰 응답자의 일반 정보

1) 응답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2) 응답자가 관악산 방문 시, 동행 관계가 어떠합니까?

2.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터뷰 응답자의 인식

1) 응답자가 알고 있거나 들었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단어로 표현가능)

2) 응답자가 생각했을 때, 도시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과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관악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터뷰 응답자의 경험 (여부)

1) 관악산 방문 시, 응답자는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문 전, 선행연구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개념 키워드를 설명함)

2) 관악산에서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하였다면, 누구와 함께 어떠한 교류 활동을 하였습니까? (동행한 사람과 한 교류 활동과 관악산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의 교류 활동을 따로 질문함 / 없는 경우는 넘어감)

[설문조사]

▌도시 근교 산지 이용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활동 양상 고찰 연구 - 관악산을 중심으로

본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신혜수 석사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연구는 관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동행 유형에 따른 사회적 교류 활동의 유형을 분석하고, 산에서의 사회적 교류 활동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산림 기본 계획, 산림 복지 서비스, 제도 및 정책 추진 시 근거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대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 신혜수

소속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환경설계전공 석사과정

▌<응답자의 일반 정보>

다음 연구 관련 질문에 앞서 응답자의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시는 답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자의 나이는?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2) 응답자의 성별은? 남 / 여

3) 응답자가 관악산을 방문했을 시, 동행관계는?

1인 / 2인 / 3-5인 이상 (소규모 집단) / 6인 이상 (대규모 집단)

4) 관악산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가끔 이용 / 한달 3회 이하 (당일형)

자주 이용 / 주 1회 또는 한 달 4회 이상 (일상형)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다음은 본 연구 논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찰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을 키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응답자가 생각하실 때, '사회적 교류 활동'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질문이므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1점은 전혀 생각 안함(비동의) / 2점은 조금 생각함 / 3점은 보통 / 4점은 그렇게 생각 함 / 5점은 매우 그렇게 생각함(동의)입니다.

해당하시는 답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만남 / 만나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2) 같이 밥먹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3) 같이 술마시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4) 친목 활동 / 취미 생활 공유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5) 서로 안부 묻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6) 동행 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류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7) 혹시 다른 경험(다른 교류 활동)이 있으시다면, 단답형으로 답해주기 바랍니다. (예. 힘든 얘기꺼내기 등등) 주관식 답변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

다음은 본 연구 논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찰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경험을 키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응답자가 관악산을 방문 했을 때,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에 어느 정도로 참여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점은 전혀 안함 / 2점은 가끔 함 / 3점은 보통 및 대게 함 / 4점은 자주 함 / 5점은 항상 함 입니다.

*경험이 없을 시, 1번 (전혀 안 함)으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시는 답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인 (혼자) 등산했을 때,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

1) 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주고 먹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2)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3) 모르는 사람에게 서로 길 안내해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4)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5) 위험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6)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7)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8)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9) 전화 통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0) 짐 정리 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1)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같이 듣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2) 완주 인증하기(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2. 2인 (연인, 친구 또는 가족) 등산했을 때,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

1) 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주고 먹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2) 동행한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3)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4) 동행한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5)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 해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6)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7)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8) 위험한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9) 동행한 사람 손 잡아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0)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1)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2) 동행한 사람과 함께 스트레칭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3)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4) 동행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5) 전화 통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6)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7) 짐 정리하면서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8)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같이 듣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9) 완주 인증하기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3. 3인 -5인 (소규모 그룹) 등산했을 때,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

1) 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주고 먹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2) 동행한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3)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4) 동행한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5)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 해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6)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7)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8) 위험한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9) 동행한 사람 손 잡아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0)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1)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2) 동행한 사람과 함께 스트레칭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3)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4) 동행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5) 전화 통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6)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7) 짐 정리하면서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8)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같이 듣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9) 완주 인증하기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4. 6인 이상 (대규모 그룹) 등산했을 때, 직접 경험한 사회적 교류 활동

1) 모르는 사람과 음식 나눠주고 먹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2) 동행한 사람과 음식 나눠 먹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3) 모르는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4) 동행한 사람과 등산하면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5)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 해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6)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7) 동행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8) 위험한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 손 잡아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9) 동행한 사람 손 잡아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0)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네주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1) 모르는 사람과 같이 스트레칭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2) 동행한 사람과 함께 스트레칭 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3)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4) 동행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5) 전화 통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6) 짐 정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7) 짐 정리하면서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8)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같이 듣기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19) 완주 인증하기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5. 관악산 등산 시, 좋아하는 장소 및 그 공간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예. 연주대 - 30분, 제 4쉼터 - 10분)

   주관식으로 답변

6. 혹시 다른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든 얘기 꺼내기 등)

   주관식으로 답변

Abstract

A Study on Social Interaction Activity through the Use of Mountain near Urban Area

-Focused on Gwanak Mountain-

Hye Soo Sh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interest in hiking has increased and the rate of use of hiking is increasing. The demand for using mountain has increased as various activities such as mountain climbing, hiking, forest cutural programme and forest bathing. In addition, due to COVID 19, the interest in hiking has increased in the 20s and 30s, and the Sanstagram which stands for Instagram and San(Mountain in Korean) has also become popular, and people tend to seek dynamic relaxation, physical relaxation, mental relaxation and social interaction relaxtion in the mountains. Most people climb mountains with various relationships such

as lovers, family, friends, and clubs and visit mountains for relaxation and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interaction activities such as talking and taking pictures while hiking, and the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start from the relationship of the companion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ocial interaction behaviours in Gwanak Mountain, which is located in the urban area an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in the mountaions and interaction activities depends on the relationship of companion.

In order to understand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in Gwanak Mountain, which is located in the urban area, this study examines how social interacit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the relationship of companion which are 1 person, 2 people, small groups of 3-5 people, and large groups of 6 or more people. This study chose the specfic 4 sties which are Gwanaksan Park, Gwanaksan Lake Park, the 4th Shelter, and Yeonjudea. This study observes the usage behaviour of visitors to Gwanak Mountain and look at what kind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are conducted for each relationship of companion and define interaction activities in details through usage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behavioural keywords which are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derived from usage observation and interviews, and are selected as the question on the survey as demonstration step among the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figure out the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llustrate the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depends on the relationship of companion and the awareness of social interaction accordingly. Through this, unlike social interaction acitivities in the urban area, visiting Gwanak Mountain which is located in the urban area could derive implication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in the mountians, and to illustrate the aspects of social interaction depends on the relationship of compan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survey, interviews, and usage observations.

First, even though there are similar aspects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in the urban area,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more diverse interaction activities in mountains than in the urban area. It can be seen that interaction activities in the mountains demonstrate in all spaces in the mountains, unlike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in the urban area that are shown in limited spaces such as alleys, roads, and outdoor spaces in apartments(flats). In additon to this, in the mountains, there are simple and light conversation and deep conversations that people could not normally share, and the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could deepen the relationship while hiking for a few hours together.

Second,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depends on the relationship of companion demonstrate slightly different aspect of behaviours and frequency of behaviours(activities). In addition to this, study illustrates that the type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and the frequency of the interaction behaviour are affected by the relationship of companion.

Third, this stduy shows that the experience and that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of companion. A single paerson who hike alone has no one accompanying, so that person occasionally interacts with strangers who meet in the mountains. However, the groups which are 2 people, small grouops and large groups show more interaction with their companions, and also with people who meet for the first time in the mountains.

Lastly, by interpreting the phenomenon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people visiting Gwanak Mountain in the urban area show active interaction activities among their companions. Furthermore, in this study, interaction behaviours with people who visit Gwanak Mountain together are shown, but also interaction behaviours with people encounte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mountains could be extended. It is possible to develop into a new relationship through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among people who meet for the first time in the mountians to feel that intimacy.

Through thi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in the mountains demonstrate that various and active interaction activities occur both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quaintances and outsid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ngers.

This interpretation could deduce a characteristics of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in the mountians, and it can be seen that the attributes of mountains affects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by experiencing behaviours that lead to deep conversations with various topics in natural elements.

This study could serve as a basic research data study when promoting systems or introducing policies such as Forest welfare services, Forest Plans, and Facility Plans in Forests in the future.

keywords : Social Interaction Activity Interaction Beahaviour, Urban Area, Mountain, Relationship of the companion

Student Number : 2021-24862